Geofront 개발 후기

Python 2와 작별하고 Python 3로 개발하기

(주)스포카 홍민희

· 스포카(spoqa.com)에서 도도포인트(dodopoint.com) 개발

- · 스포카(spoqa.com)에서 도도포인트(dodopoint.com) 개발
- 자유 소프트웨어 지지자, 오픈 소스 애호가

- · 스포카(spoqa.com)에서 도도포인트(dodopoint.com) 개발
- 자유 소프트웨어 지지자, 오픈 소스 애호가
- 곧 파이썬 10년차

- · 스포카(spoqa.com)에서 도도포인트(dodopoint.com) 개발
- 자유 소프트웨어 지지자, 오픈 소스 애호가
- 곧 파이썬 10년차
- http://hongminhee.org/

• 총슬라이드 80장

- 총슬라이드 80장
- 그 중에서 30장이 지오프론트 소개

- 총슬라이드 80장
- 그 중에서 30장이 지오프론트 소개
- 파이썬 3 얘기는 45장

• 원래는 라이트닝 토크로 파이썬 3 얘기나 하려 했으나

- 원래는 라이트닝 토크로 파이썬 3 얘기나 하려 했으나
-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메인 발표로 변경

- 원래는 라이트닝 토크로 파이썬 3 얘기나 하려 했으나
-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메인 발표로 변경
- 이번에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추가

- 원래는 라이트닝 토크로 파이썬 3 얘기나 하려 했으나
-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메인 발표로 변경
- 이번에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추가
- 발표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주제**나 마찬가지

- 원래는 라이트닝 토크로 파이썬 3 얘기나 하려 했으나
-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메인 발표로 변경
- 이번에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추가
- 발표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주제**나 마찬가지
- 죄송합니다

1부: 지오프론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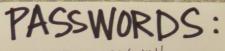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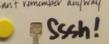




This fracks !! Brukyelink: Marx:

Gamegneric | sukvitpass 234 can't vomember anyway

Time Kupinos







And the lake was a dark spot on a lung.

Some part of its peace was dead; the rest was temporary. Sleeping ducks and gleese, goose shit underfoot and wet gray blades of grass. The fingerings like sleeping bullets hung deep in the troughs of the hatchery and cold traveled each one end to end, such distances.

We lay down in the grass on our backs — beyond the hatchery the streetlights were mired in fog and so there were no stars, or stars would say there was no earth.









• 보안 의식과 귀찮음 사이의 줄다리기

- 보안 의식과 귀찮음 사이의 줄다리기
- 대부분의 소규모 팀은 보안 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 보안 의식과 귀찮음 사이의 줄다리기
- 대부분의 소규모 팀은 보안 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 아무도 우리 같은 작은 팀의 서버를 노리지 않을 거라는 (비교적) 합리적 판단에 근거

- · 보안 의식과 귀찮음 사이의 줄다리기
- 대부분의 소규모 팀은 보안 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 아무도 우리 같은 작은 팀의 서버를 노리지 않을 거라는 (비교적) 합리적 판단에 근거
- 하지만 **무차별적/기계적 공격**은 팀의 규모나 비즈니스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 게 함정

• 공유 비밀번호의 예

- 공유 비밀번호의 예
 - 창업자 전화번호

- 공유 비밀번호의 예
 - 창업자 전화번호
 - 창업자 이름이나 회사명을 두벌식→쿼티로 부호화 ("홍민희"→"ghdalsgml")

- 공유 비밀번호의 예
 - 창업자 전화번호
 - 창업자 이름이나 회사명을 두벌식→쿼티로 부호화 ("홍민희"→"ghdalsgml")
 - · 가장 안좋은 경우: "asdf", "1234", "1111"...

- 공유 비밀번호의 예
 - 창업자 전화번호
 - 창업자 이름이나 회사명을 두벌식→쿼티로 부호화 ("홍민희"→"ghdalsgml")
 - · 가장 안좋은 경우: "asdf", "1234", "1111"...
- 차라리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말지?

- 공유 비밀번호의 예
 - 창업자 전화번호
 - 창업자 이름이나 회사명을 두벌식→쿼티로 부호화 ("홍민희"→"ghdalsgml")
 - 가장 안좋은 경우: "asdf", "1234", "1111"...
- 차라리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말지?
- 비밀번호 없애는 게 더 귀찮으니까 저렇게 하지 멍청아!

• 뛰어난 개발자들조차 귀차니즘 앞에서 굴복

- 뛰어난 개발자들조차 귀차니즘 앞에서 굴복
- · 대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귀찮아서 안하는 것

- 뛰어난 개발자들조차 귀차니즘 앞에서 굴복
- · 대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귀찮아서 안하는 것
- 보안성이 높아도 귀찮은 시스템은 선택되지 않음

- 뛰어난 개발자들조차 귀차니즘 앞에서 굴복
- · 대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귀찮아서 안하는 것
- 보안성이 높아도 귀찮은 시스템은 선택되지 않음
- · 최대한 덜 귀찮게 하는 것이 그나마 보안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

Α

В

(

D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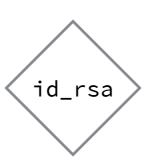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Α

В

 C

D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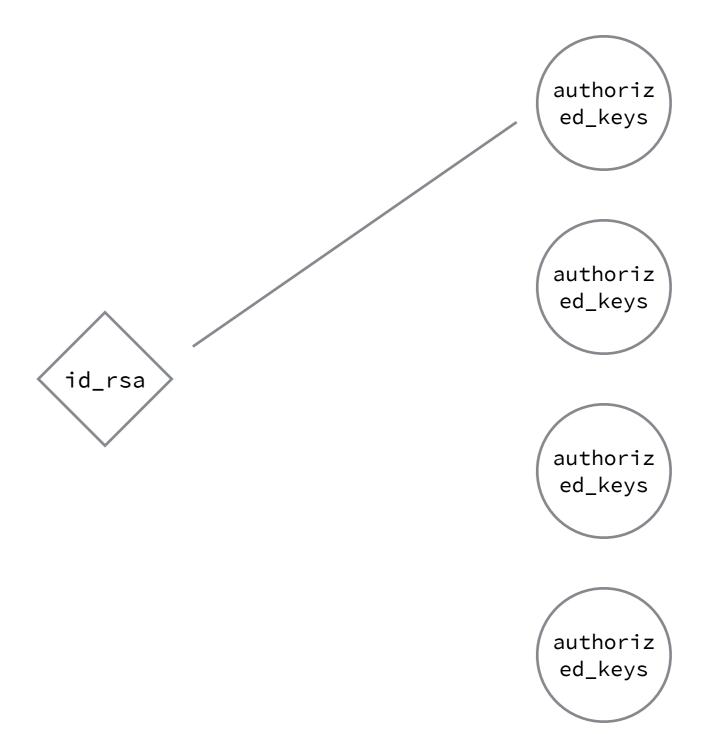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Α

В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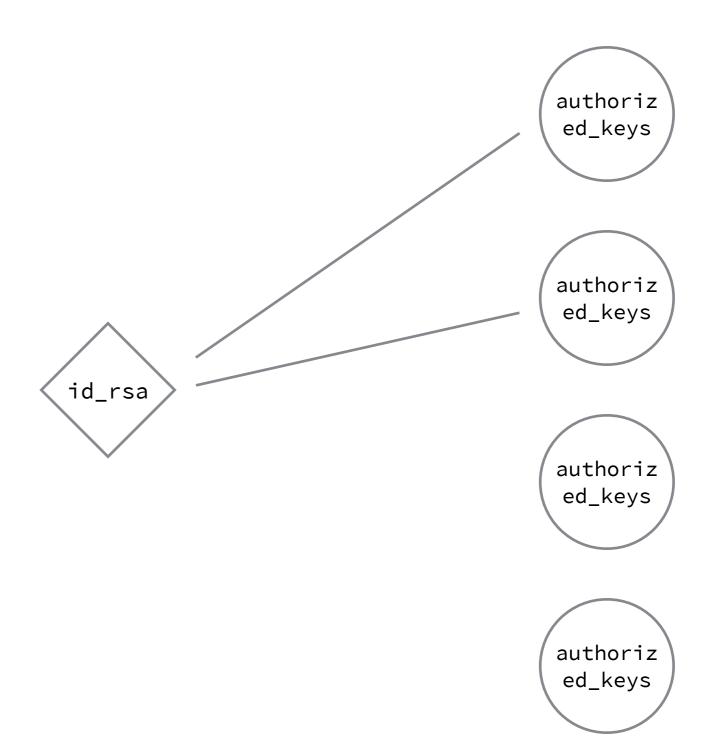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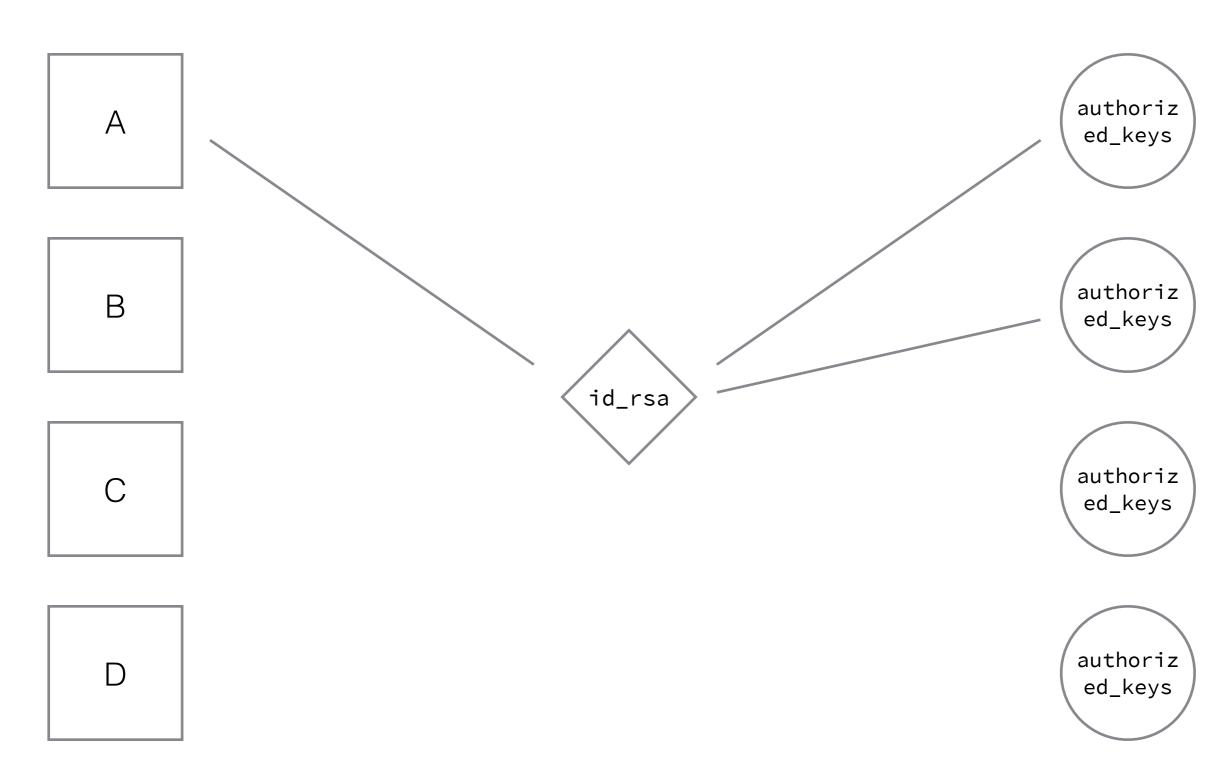
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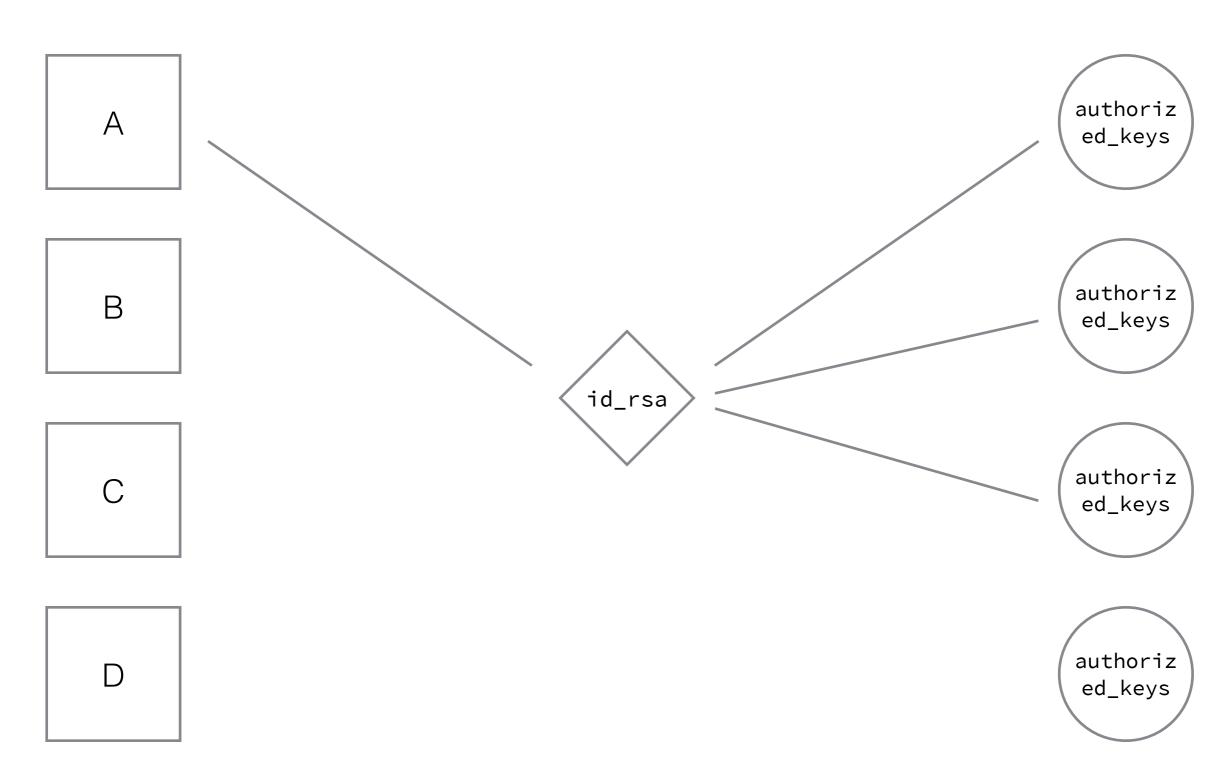
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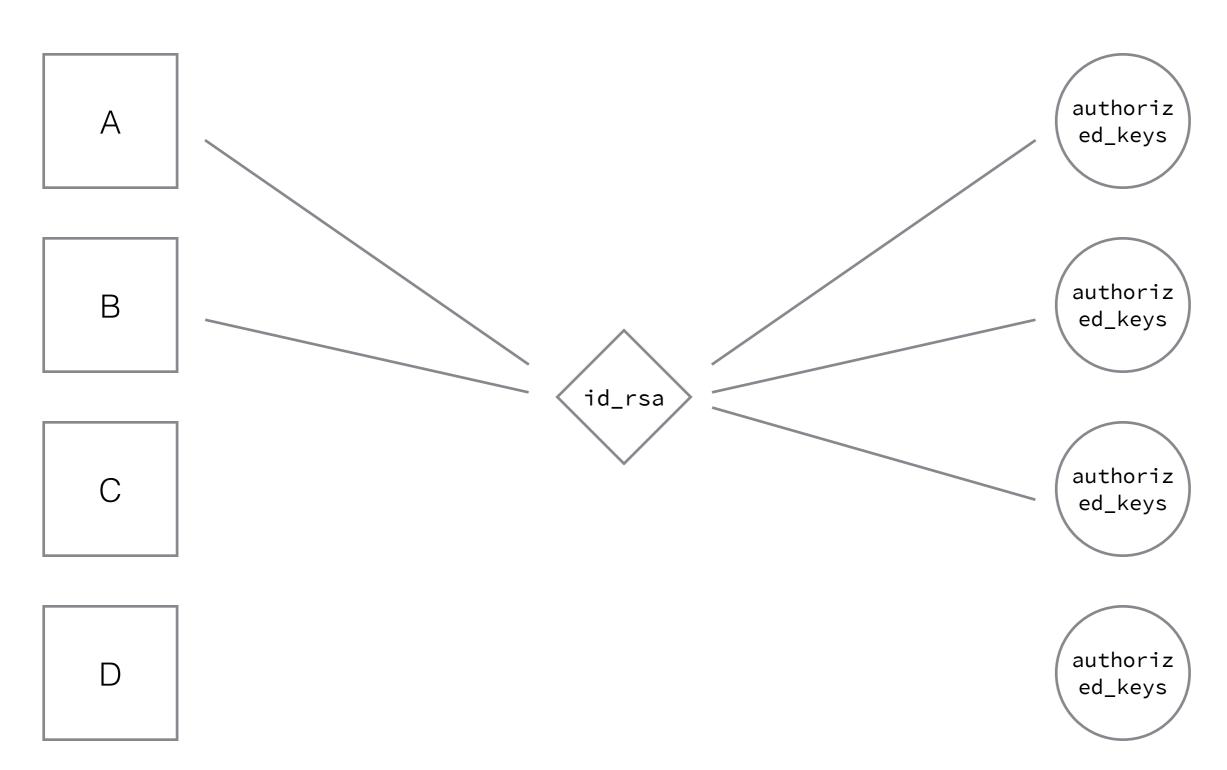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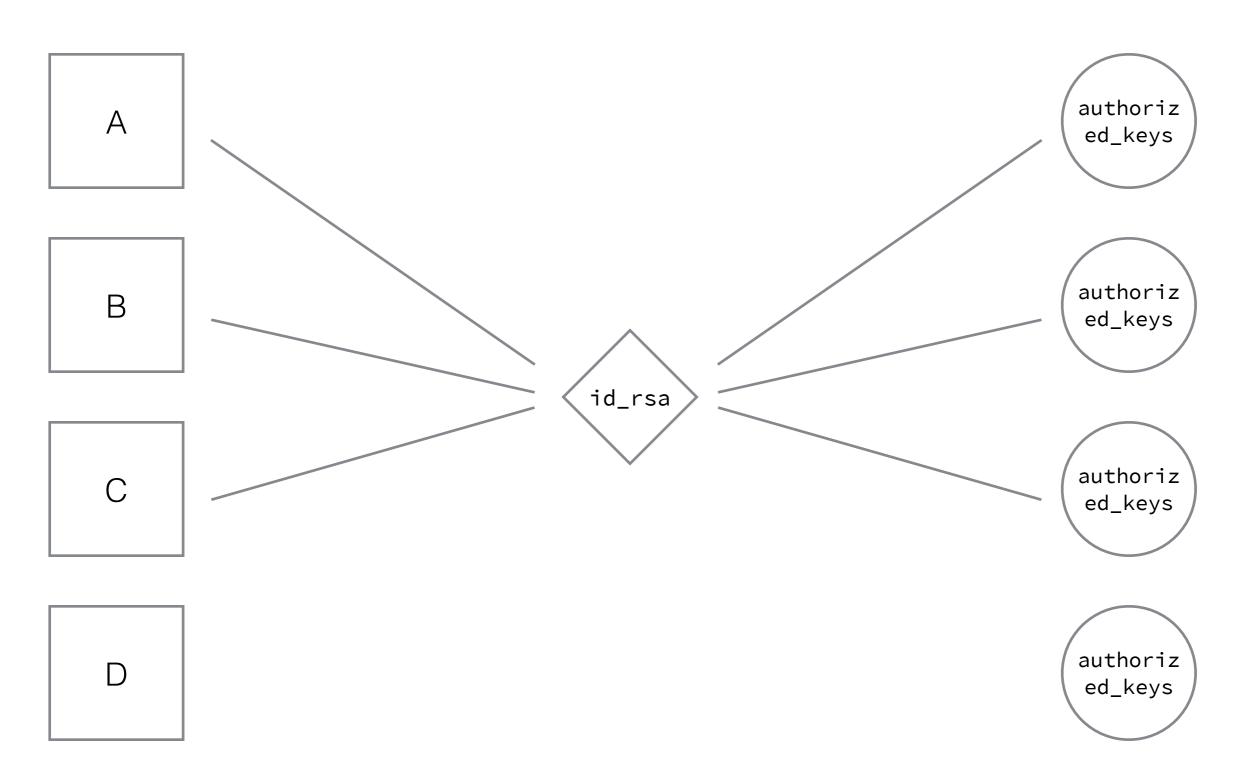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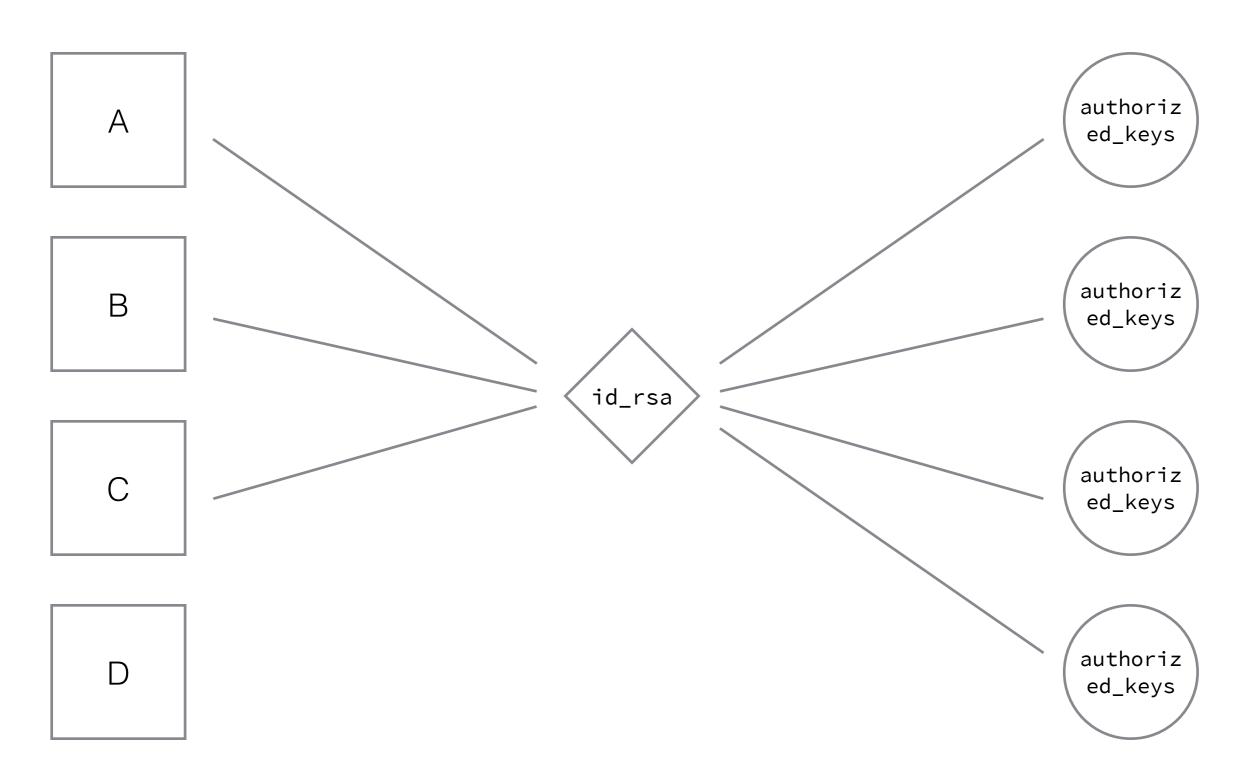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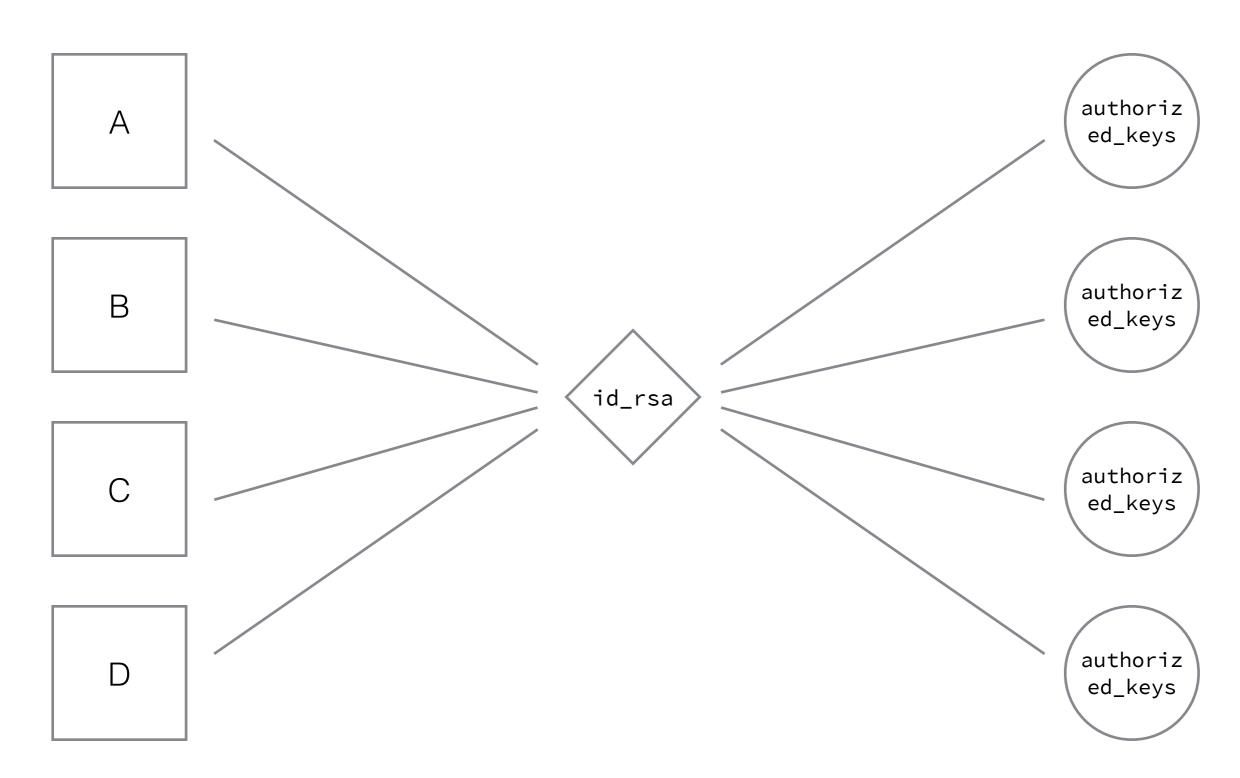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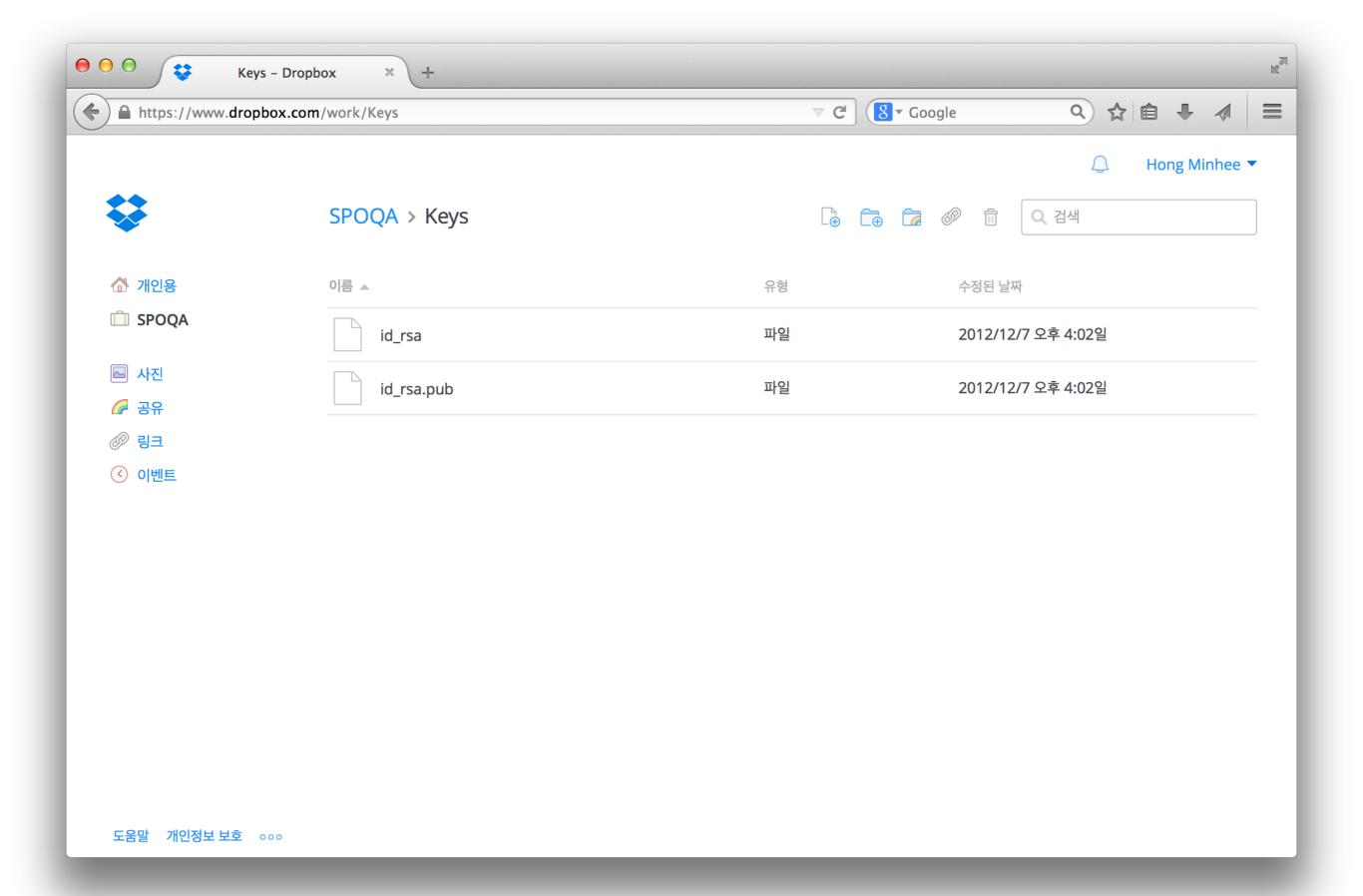
• 아주 작은 팀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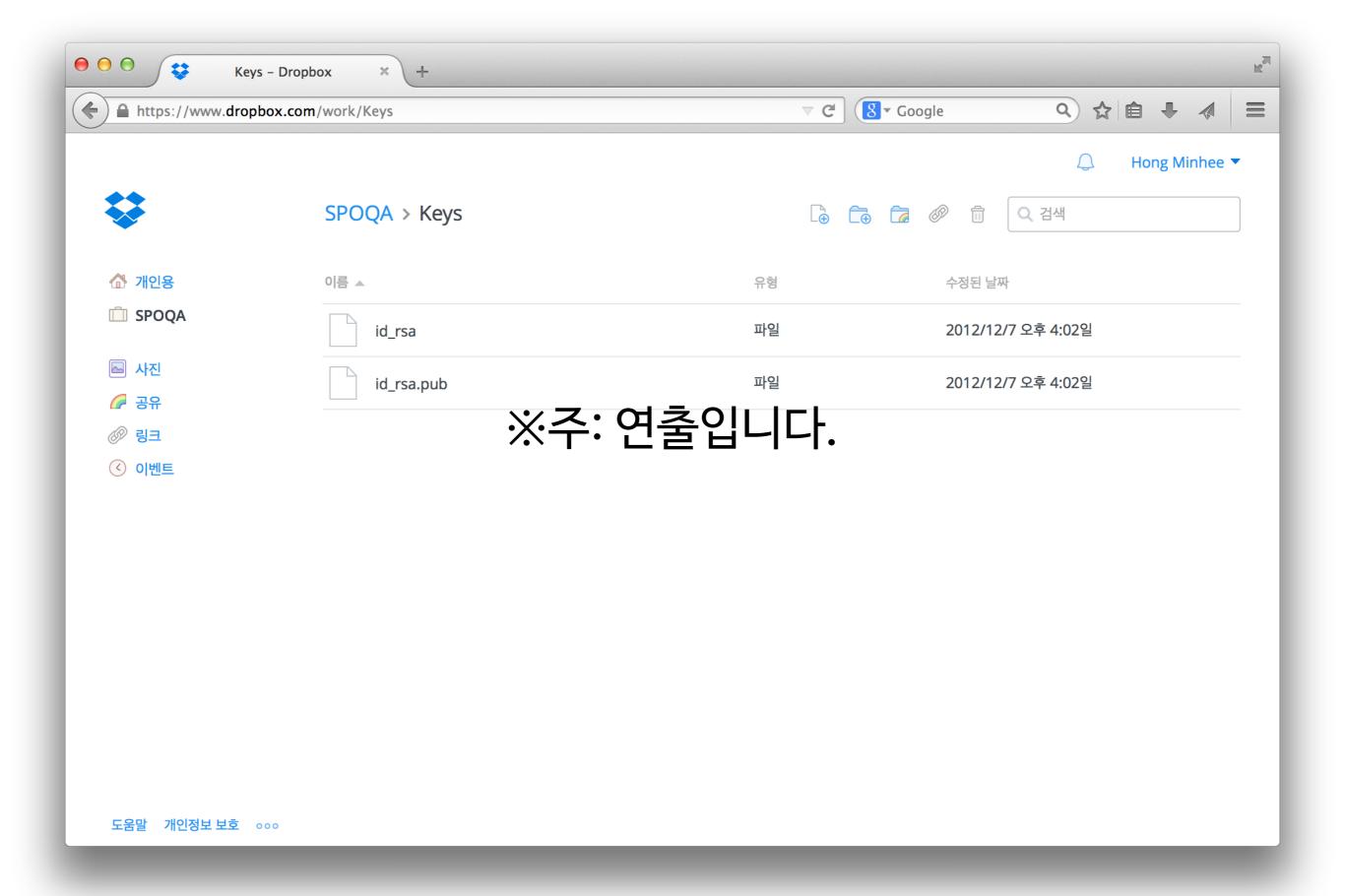
- 아주 작은 팀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 당연히(?) 패스프레이즈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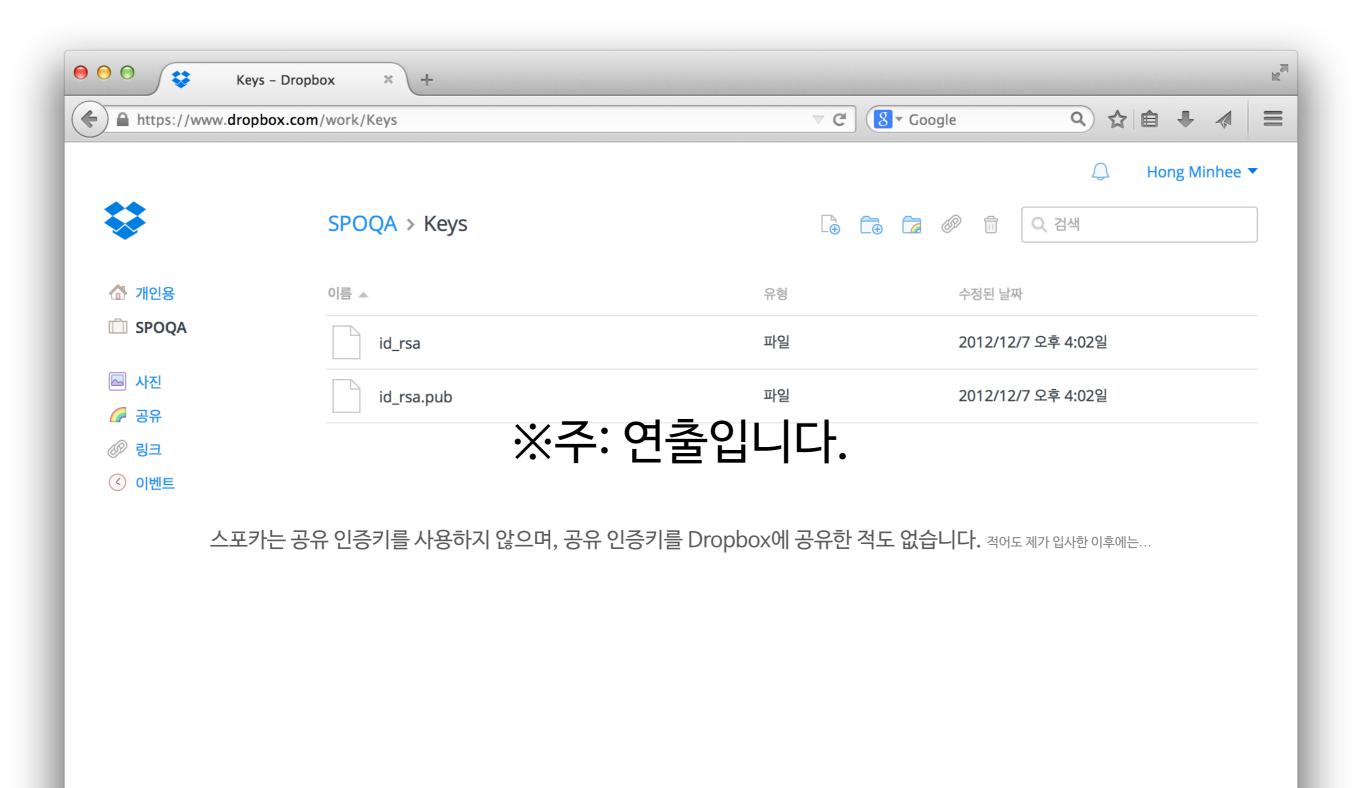
- 아주 작은 팀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 당연히(?) 패스프레이즈는 없다!
- 왜냐하면...

- 아주 작은 팀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 당연히(?) 패스프레이즈는 없다!
- 왜냐하면...
- ·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도 귀찮아서 쓰는 거니까!

- 아주 작은 팀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 당연히(?) 패스프레이즈는 없다!
- 왜냐하면...
- ·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도 귀찮아서 쓰는 거니까!
-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새 인증키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딴 귀찮은 짓을 할 리가...







• DVCS의 성공으로 전보다 훨씬 많이 보급된 상황

- DVCS의 성공으로 전보다 훨씬 많이 보급된 상황
- 주요 저장소 서비스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

- DVCS의 성공으로 전보다 훨씬 많이 보급된 상황
- 주요 저장소 서비스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
- 각자 인증키를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인증하자!

- DVCS의 성공으로 전보다 훨씬 많이 보급된 상황
- 주요 저장소 서비스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
- 각자 인증키를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인증하자!
- authorized_keys

- DVCS의 성공으로 전보다 훨씬 많이 보급된 상황
- 주요 저장소 서비스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
- 각자 인증키를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인증하자!
- authorized_keys
- ssh-copy-id

Α

В

(

D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Α



authoriz ed_keys

В

authoriz ed_keys

C

authoriz ed_keys

D

A id_rsa

authoriz

ed_keys

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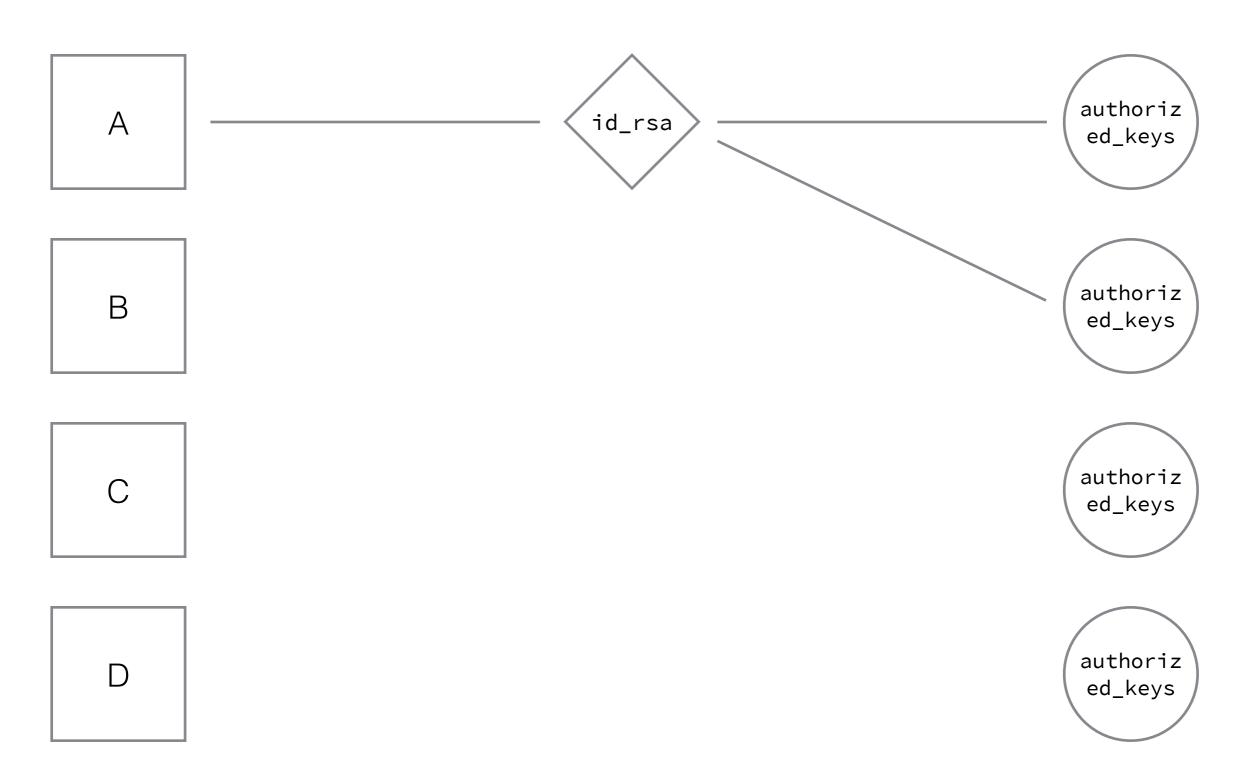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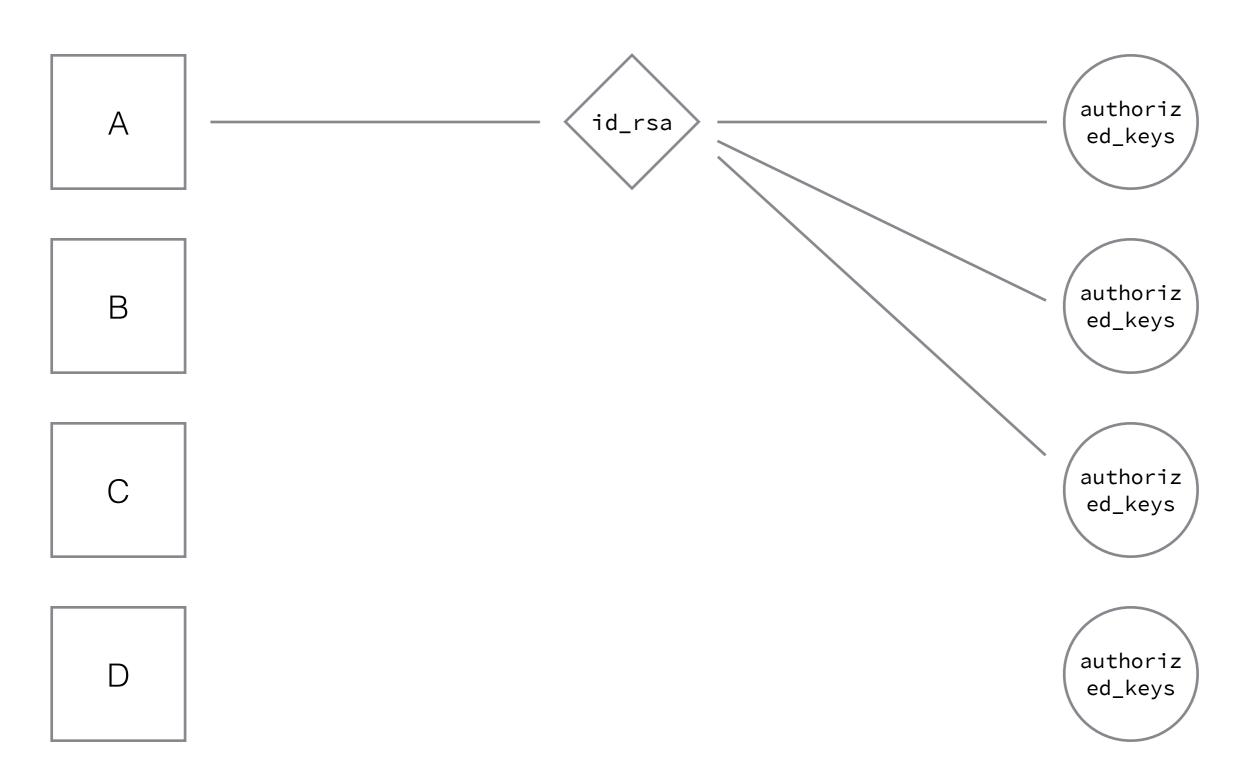
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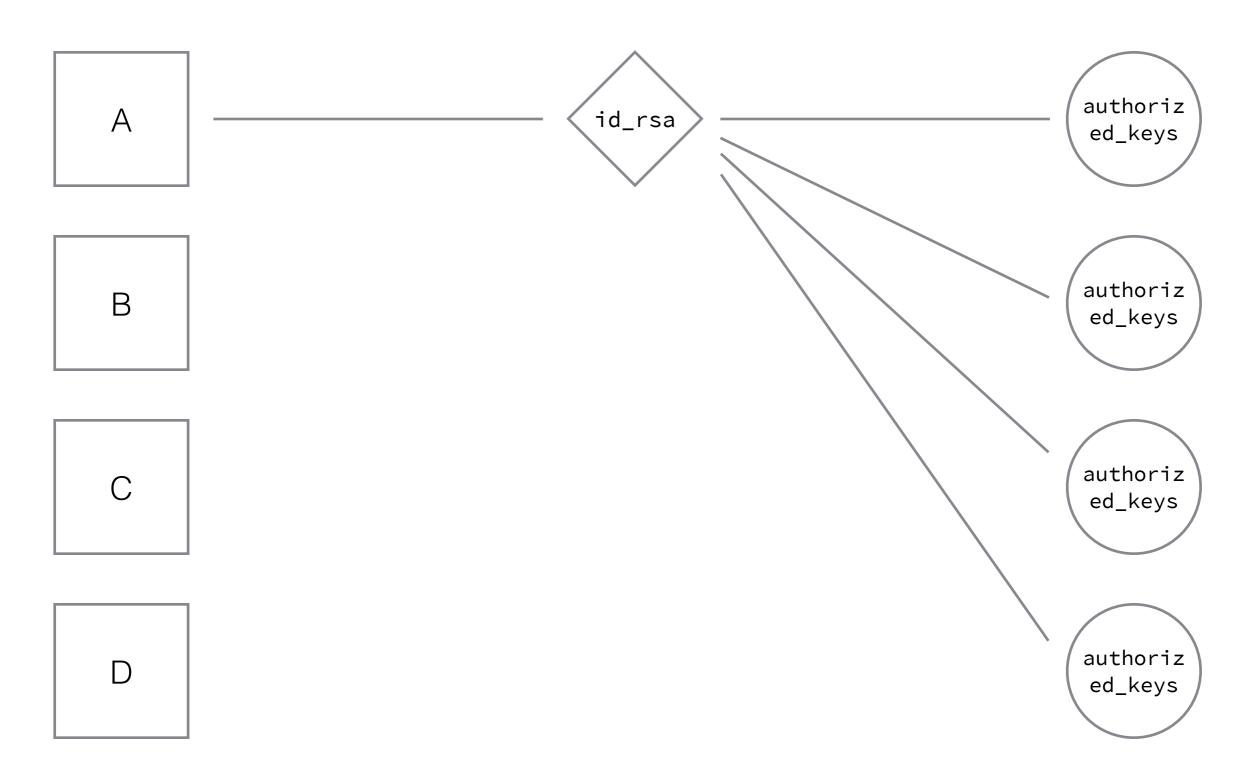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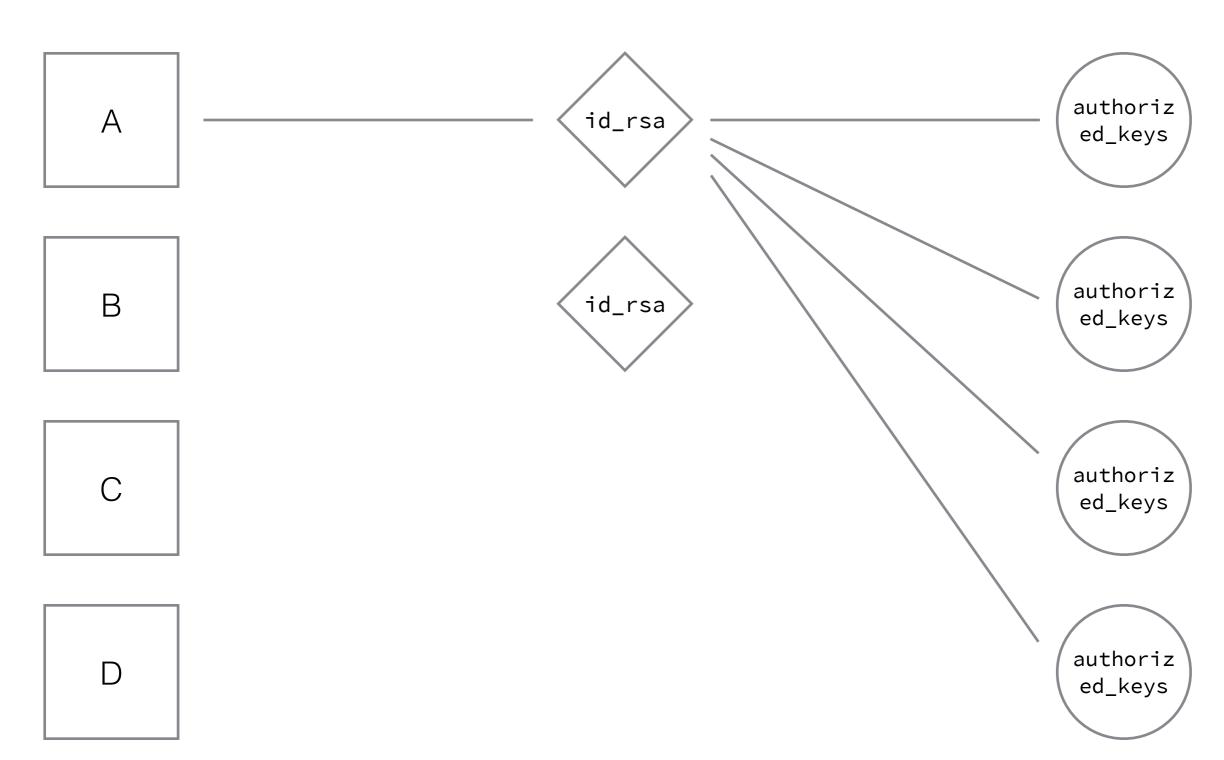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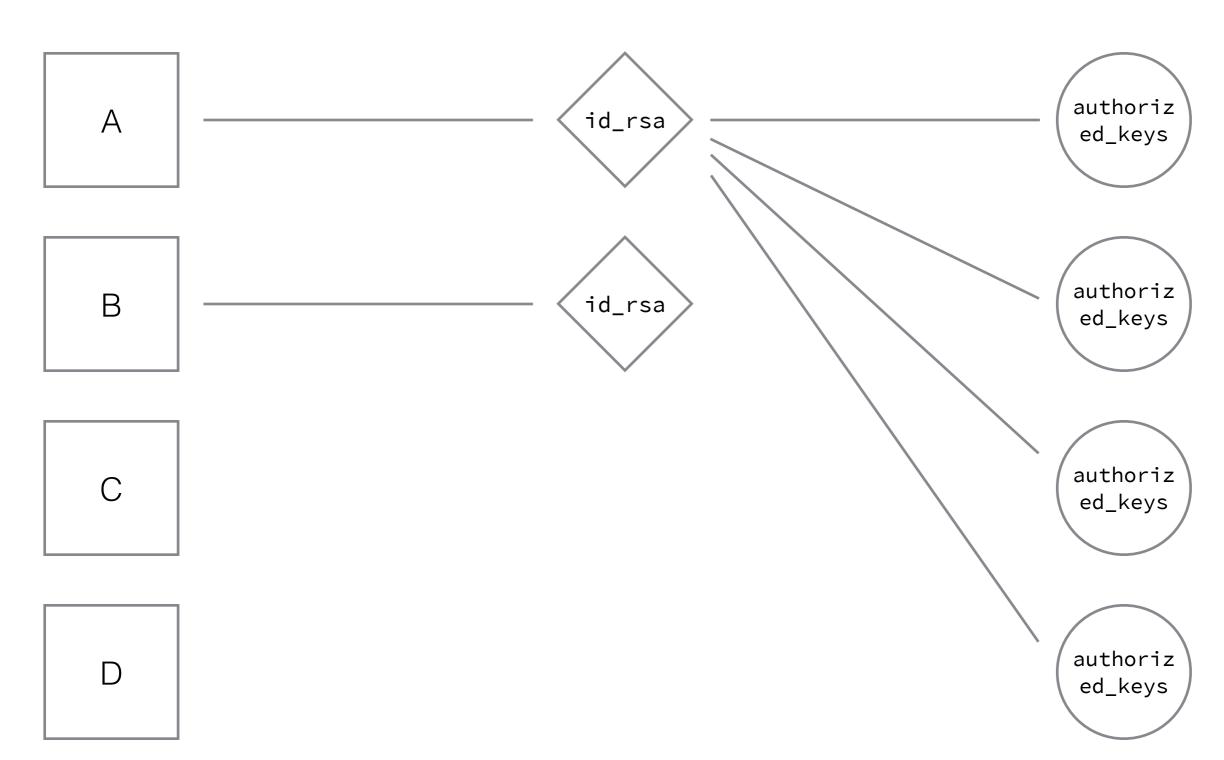
authoriz id_rsa Α ed_keys authoriz В ed_keys authoriz ed_keys authoriz D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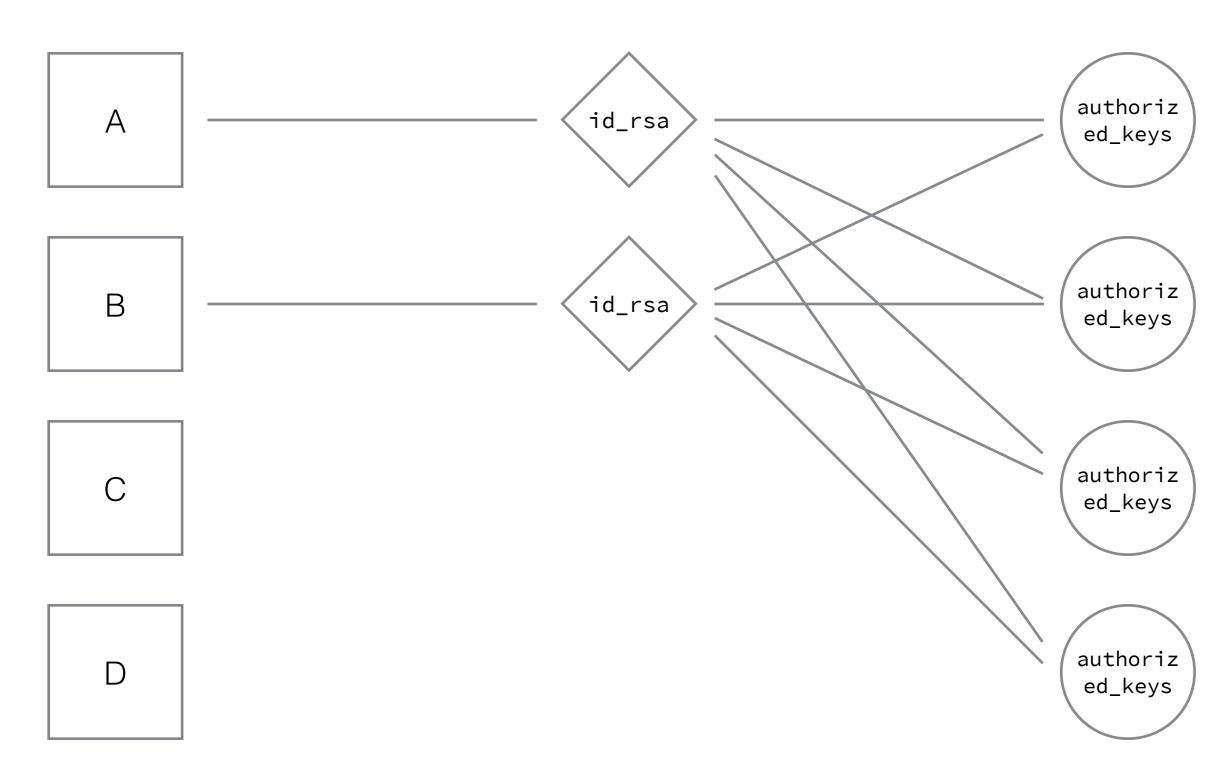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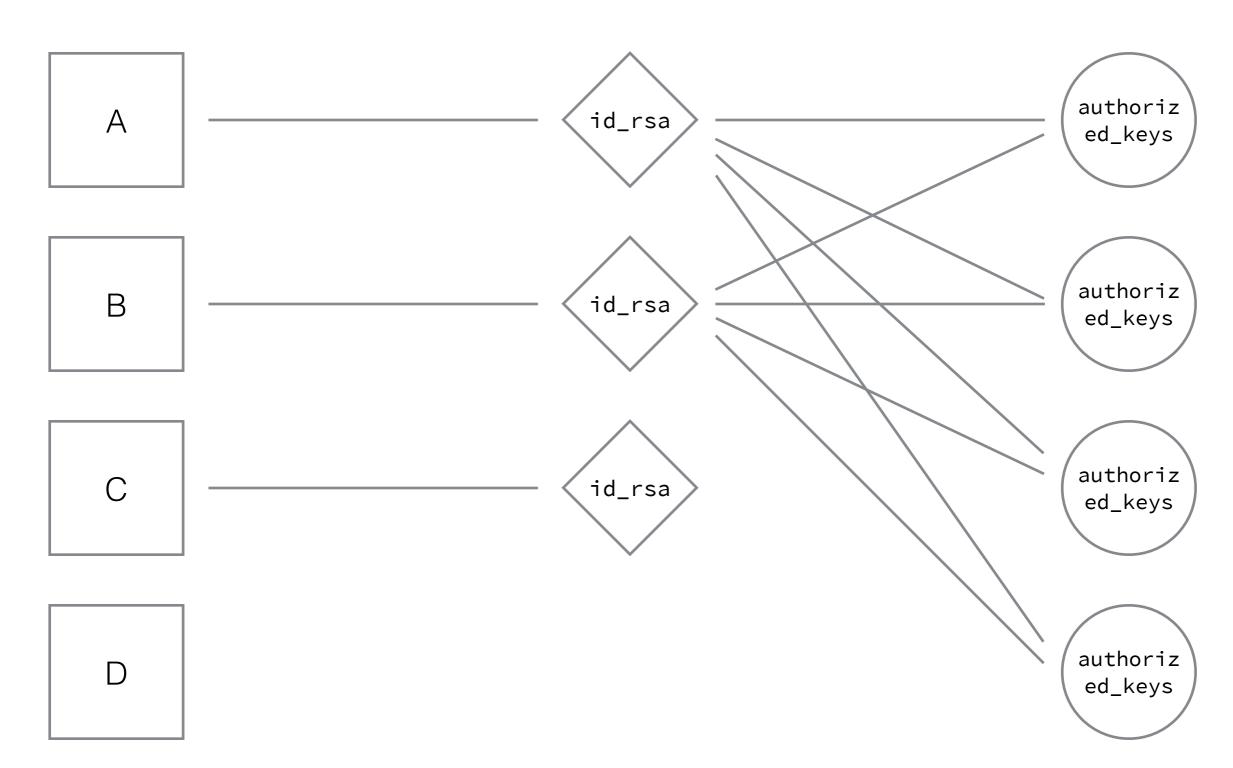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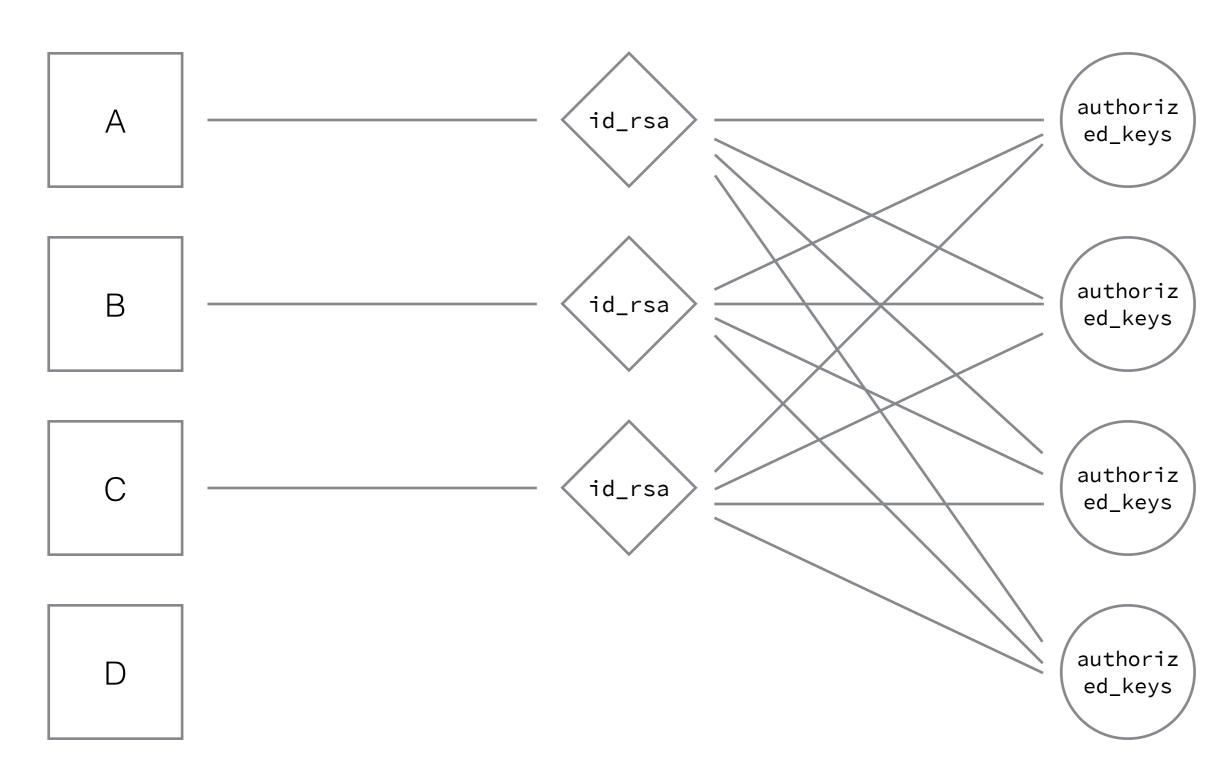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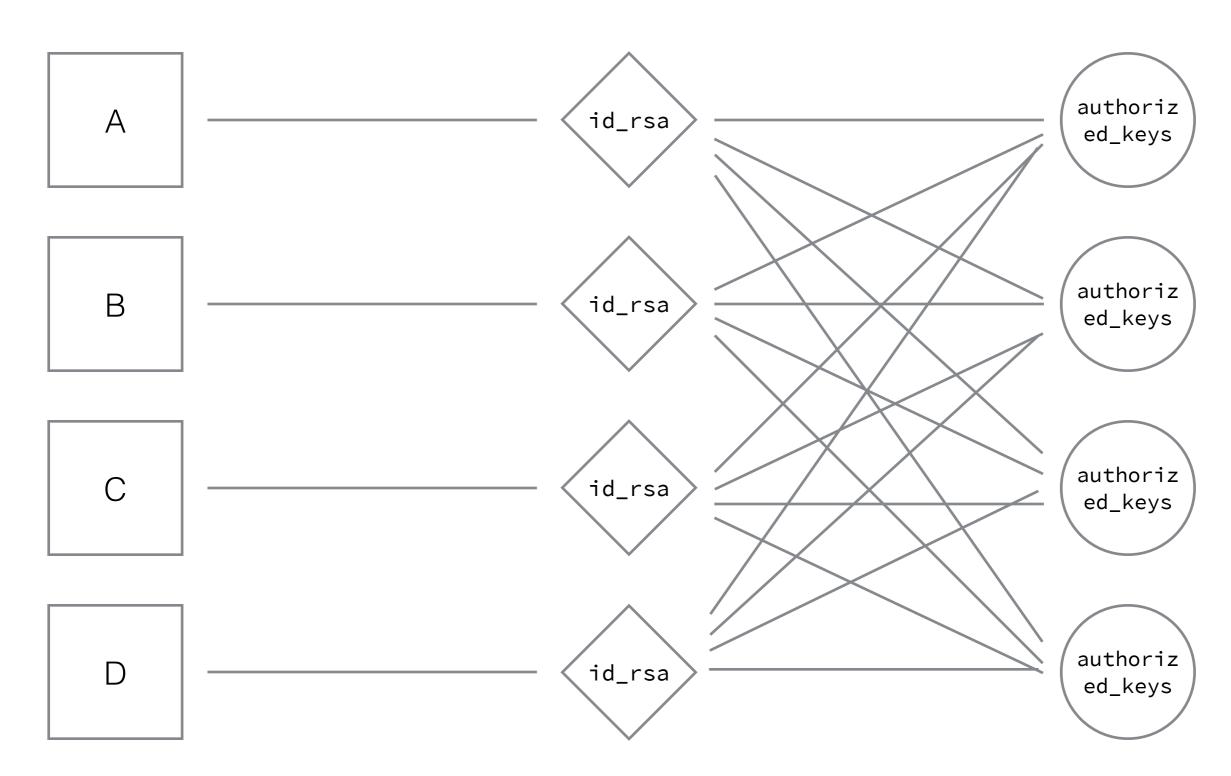












• 팀원이 새로 들어오면 어쩌지?

- 팀원이 새로 들어오면 어쩌지?
- 팀원이 나가면?

- 팀원이 새로 들어오면 어쩌지?
- 팀원이 나가면?
- 원격지 수만큼 수정

- 팀원이 새로 들어오면 어쩌지?
- 팀원이 나가면?
- 원격지 수만큼 수정
- 새로 들어온 사람의 인증키를 원격지마다 추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긴 해도...

- 팀원이 새로 들어오면 어쩌지?
- 팀원이 나가면?
- 원격지 수만큼 수정
- 새로 들어온 사람의 인증키를 원격지마다 추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긴 해도...
- 나간 사람 빼는 건 귀찮으니까 나중에

· 새로운 사람, 나간 사람 생길 때마다 모든 원격지의 authorized_keys 수정해야 함

- · 새로운 사람, 나간 사람 생길 때마다 모든 원격지의 authorized_keys 수정해야 함
- 근데 누가 추가하고 제거하지?

- · 새로운 사람, 나간 사람 생길 때마다 모든 원격지의 authorized_keys 수정해야 함
- · 근데 **누가** 추가하고 제거하지?
- "홍 님 인증키 추가좀 부탁드려요."

- · 새로운 사람, 나간 사람 생길 때마다 모든 원격지의 authorized_keys 수정해야 함
- · 근데 **누가** 추가하고 제거하지?
- "홍 님 인증키 추가좀 부탁드려요."
- · A ト 내가 해야함?





• 새로 온 사람 공개키를 매번 보내달라고 하기 귀찮다

- 새로 온 사람 공개키를 매번 보내달라고 하기 귀찮다
- 사람 나갈 때 그 사람 공개키 빼야 한다는 거 자꾸 까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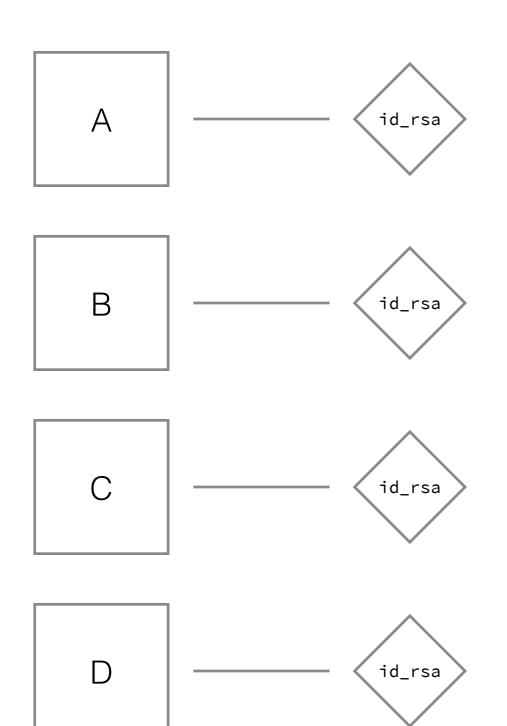
- 새로 온 사람 공개키를 매번 보내달라고 하기 귀찮다
- 사람 나갈 때 그 사람 공개키 빼야 한다는 거 자꾸 까먹는다
- · 그냥 한번 **자동화** 해놓고 나는 **아무 짓도 안해도** 돌아갔음 좋겠다

• 어, 근데 새로 온 사람도 깃헙 계정은 있지 않나?

- 어, 근데 새로 온 사람도 깃헙 계정은 있지 않나?
- 깃헙에 원래 각자 공개키는 올려두고 쓰지 않나?

- 어, 근데 새로 온 사람도 깃헙 계정은 있지 않나?
- 깃헙에 원래 각자 공개키는 올려두고 쓰지 않나?
- 참, 우리 회사도 깃헙 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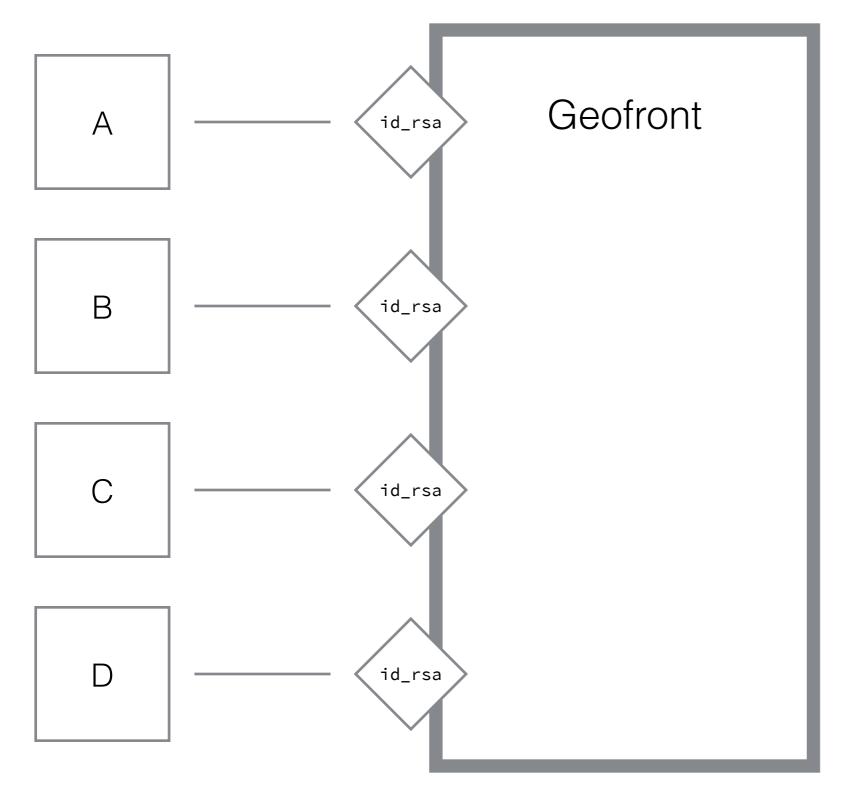
- 어, 근데 새로 온 사람도 깃헙 계정은 있지 않나?
- 깃헙에 원래 각자 공개키는 올려두고 쓰지 않나?
- 참, 우리 회사도 깃헙 쓰지?
- · 깃헙 organization에 팀원 추가/제거하는 행동으로 알아서 되게끔 못하려나?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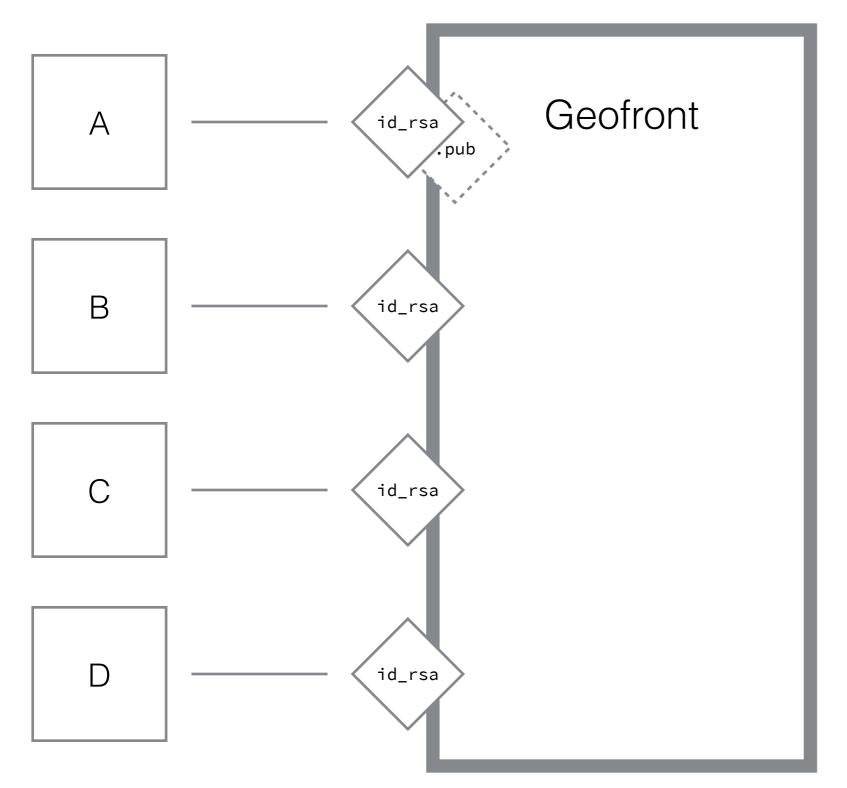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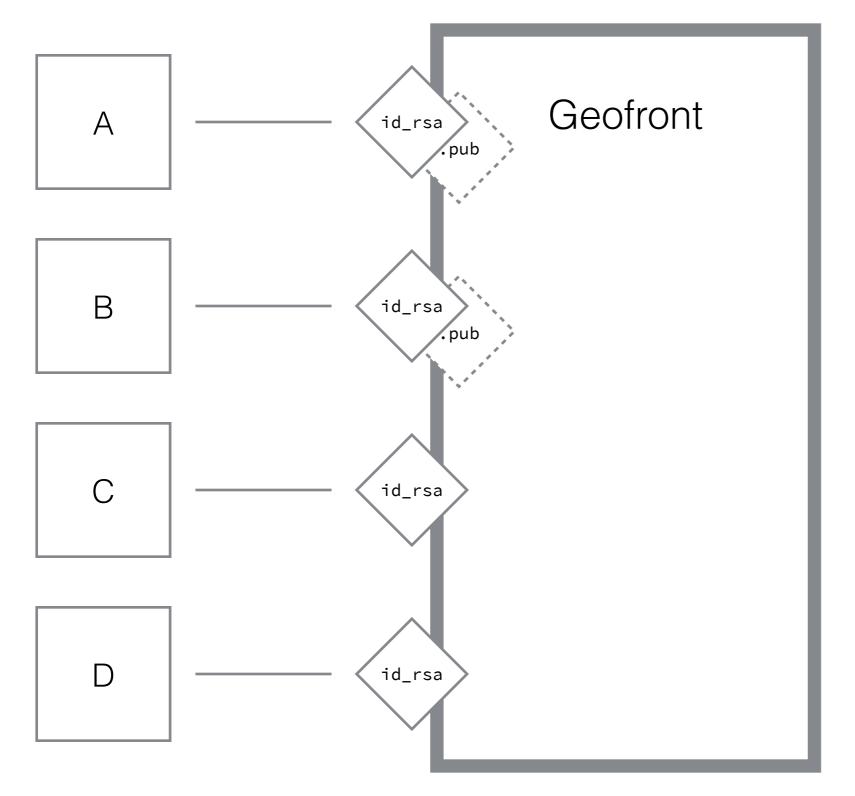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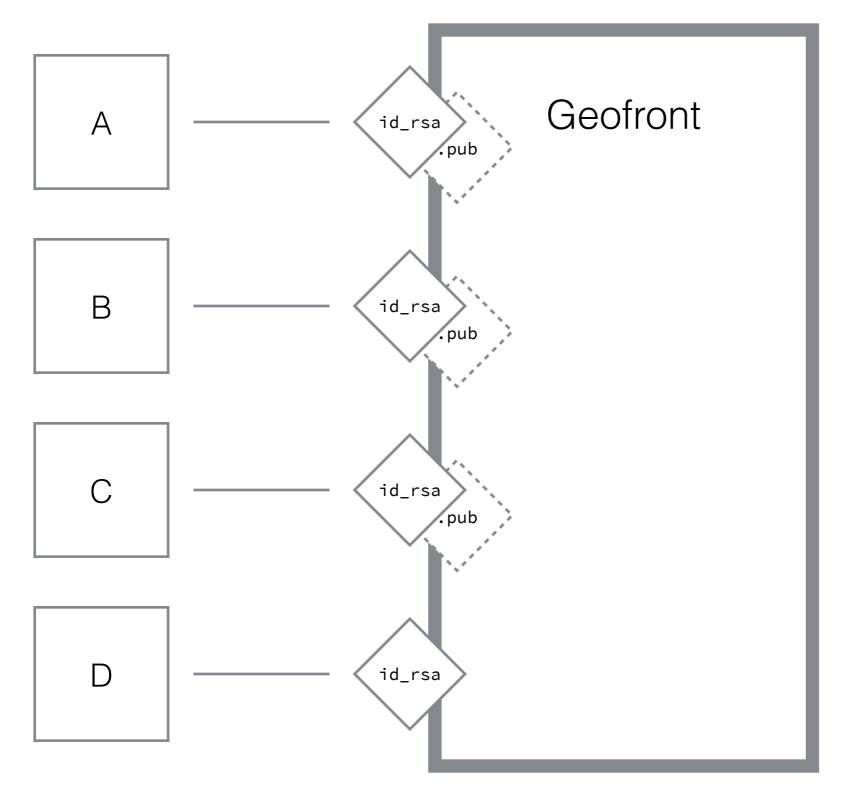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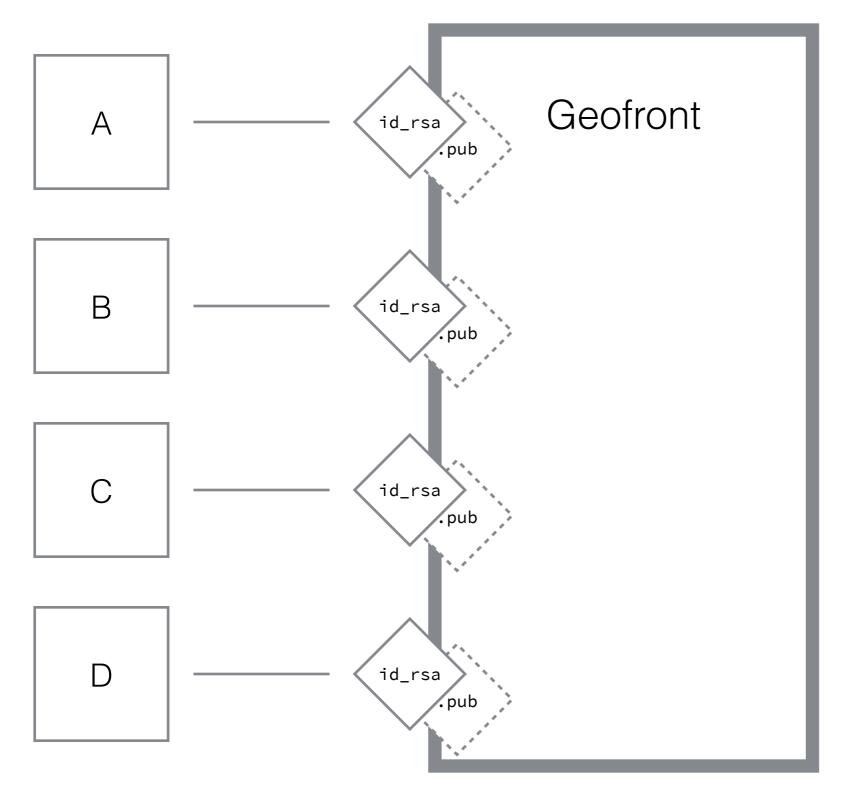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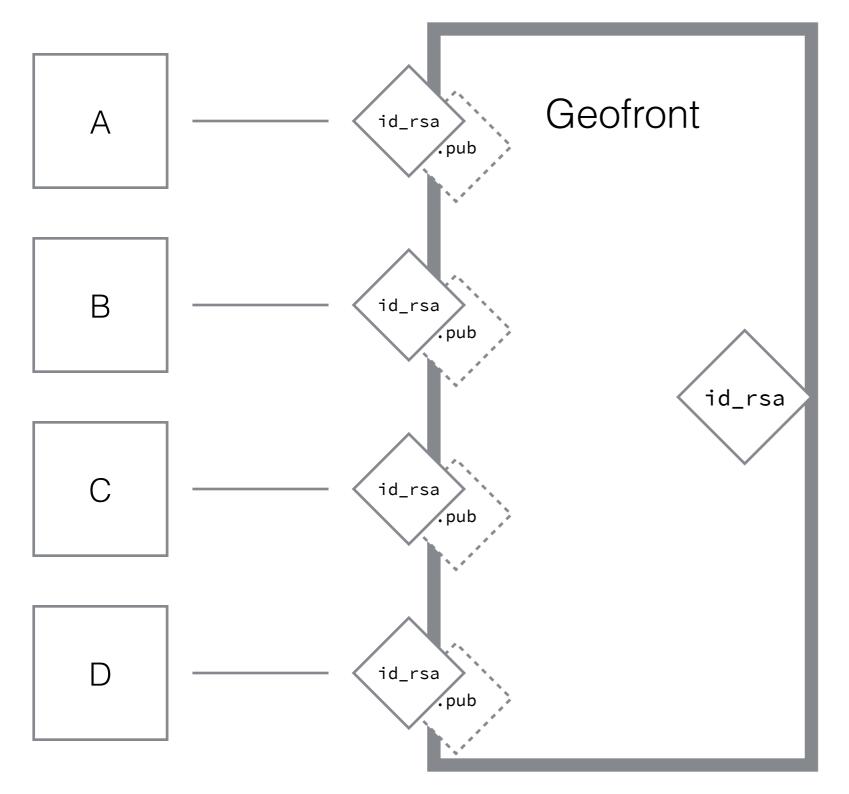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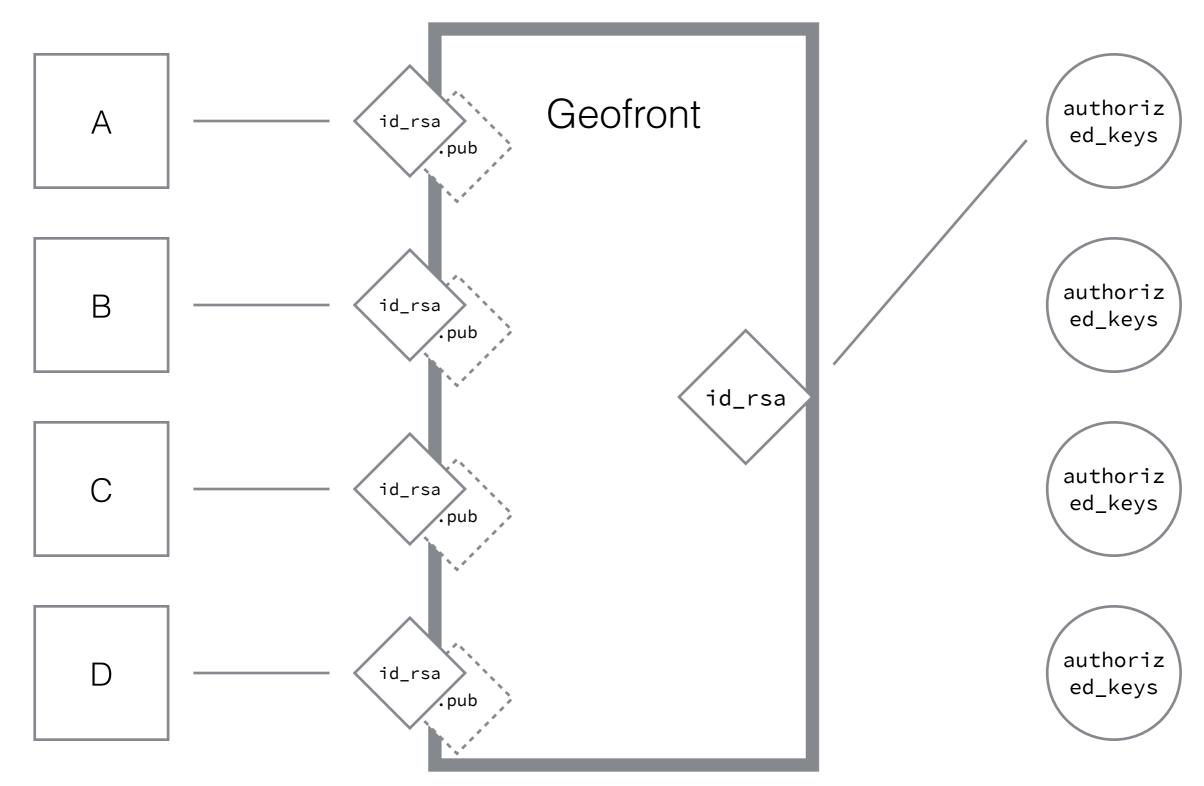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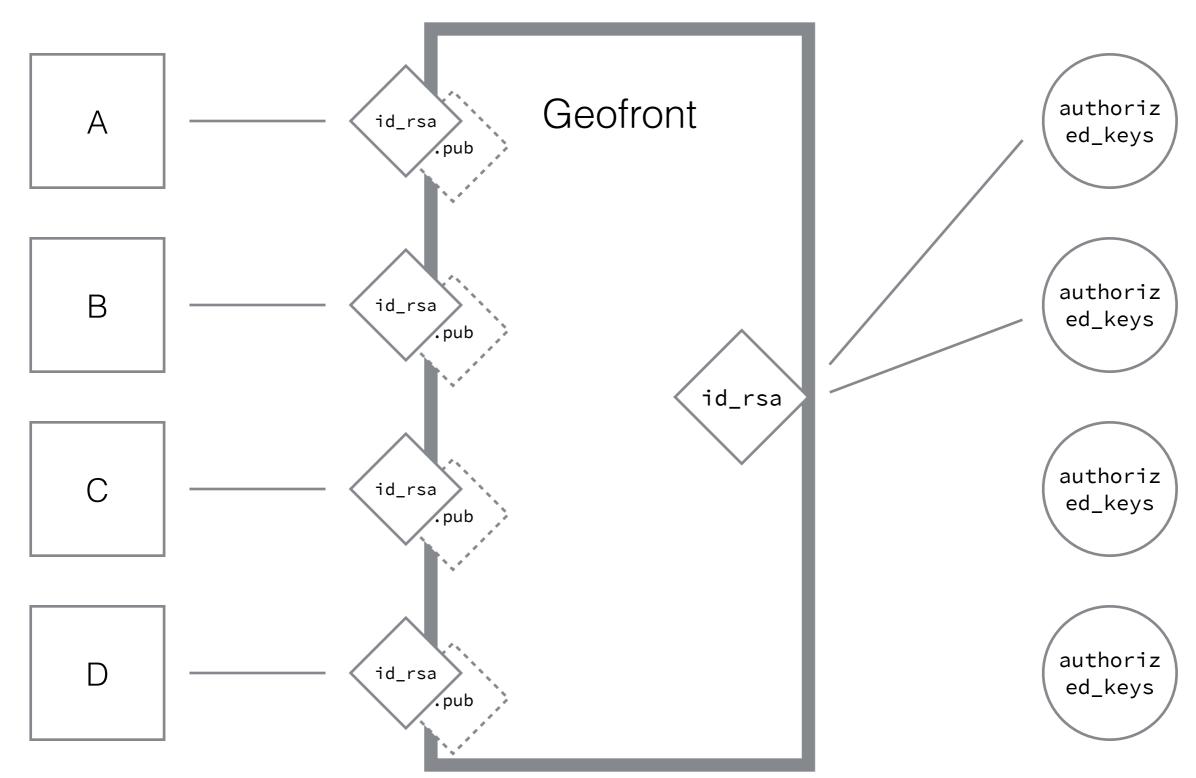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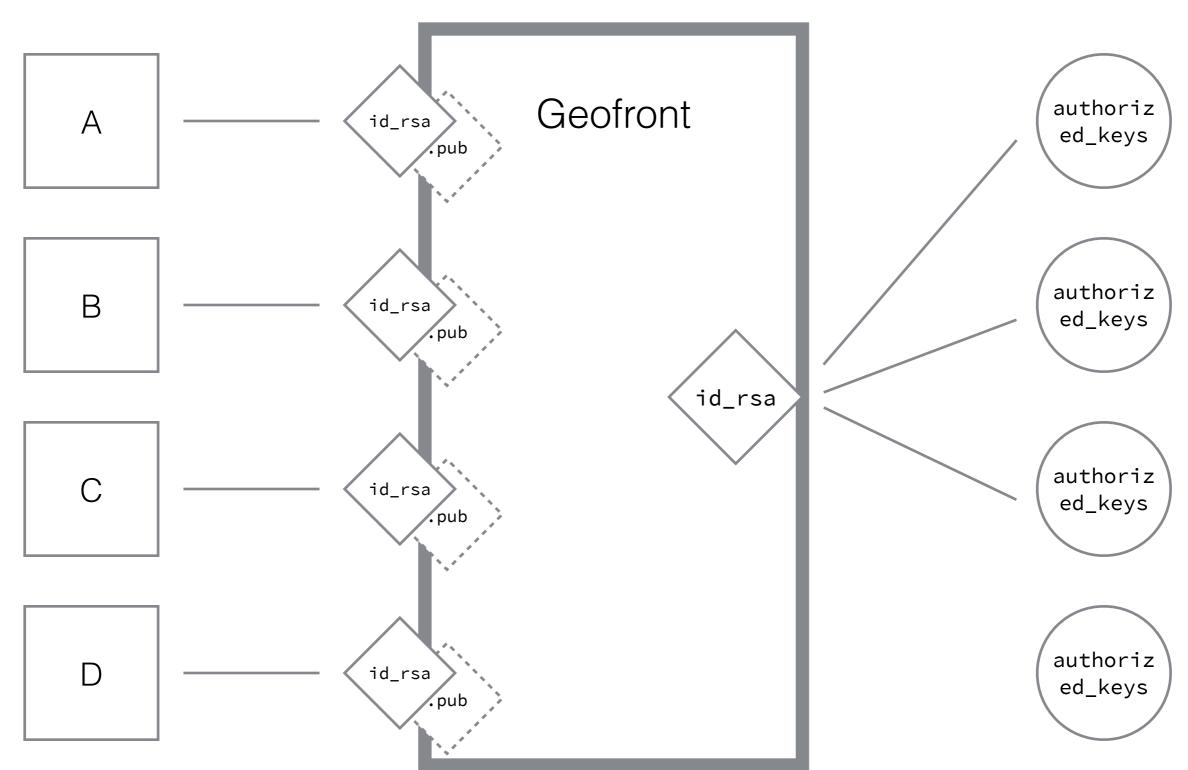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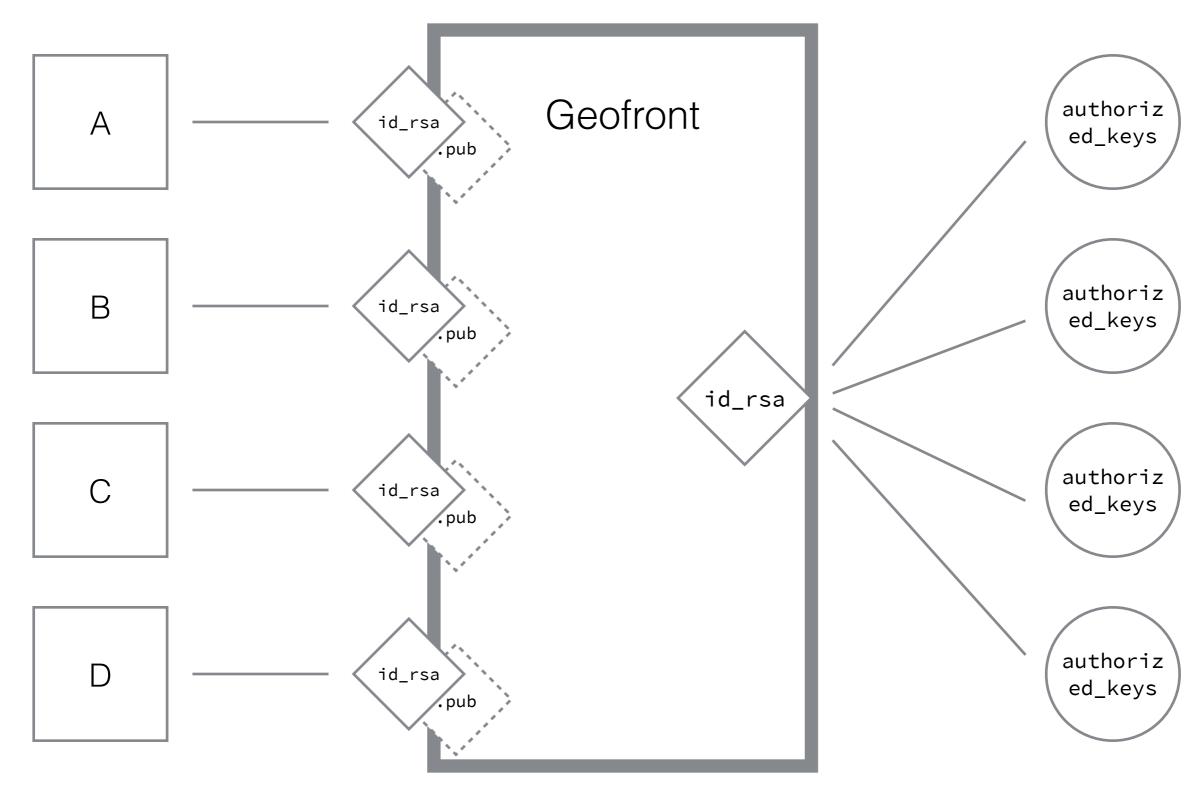
authoriz ed_keys

authoriz ed_keys









마스터키아미디어

마스터키아미디어

· 지오프론트 서버는 하나의 **마스터 키**를 유지

마스터키아미디어

- · 지오프론트 서버는 하나의 **마스터 키**를 유지
- · 마스터 키는 지오프론트 서버만 접근 가능한 곳에 보존

마스터 키 아이디어

- · 지오프론트 서버는 하나의 **마스터 키**를 유지
- · 마스터 키는 지오프론트 서버만 접근 가능한 곳에 보존
- · 모든 원격지는 마스터 키만 허용하는 **단 1줄짜리** authorized_keys만 유지

마스터 키 아이디어

- · 지오프론트 서버는 하나의 **마스터 키**를 유지
- · 마스터 키는 지오프론트 서버만 접근 가능한 곳에 보존
- · 모든 원격지는 마스터 키만 허용하는 **단 1줄짜리** authorized_keys만 유지
- 어디서 많이 본... 공유 키 방식?

마스터 키 아이디어

- · 지오프론트 서버는 하나의 **마스터 키**를 유지
- · 마스터 키는 지오프론트 서버만 접근 가능한 곳에 보존
- 모든 원격지는 마스터 키만 허용하는 **단 1줄짜리** authorized_keys만 유지
- 어디서 많이 본... 공유 키 방식?
- · 마스터 키는 **주기적으로 파기 후 재생성** (기본값 하루)

지오프론트 CLI

지오프론트 C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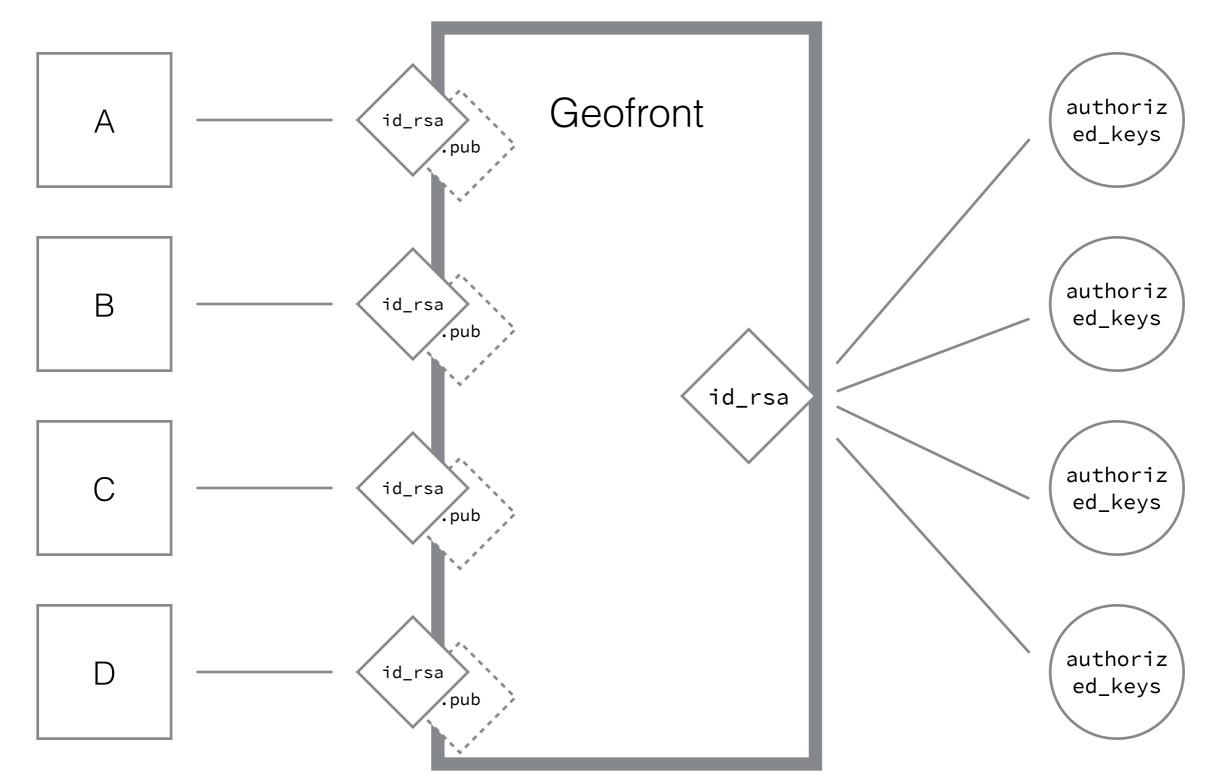
```
$ pip install --user geofront-cli
```

지오프론트 C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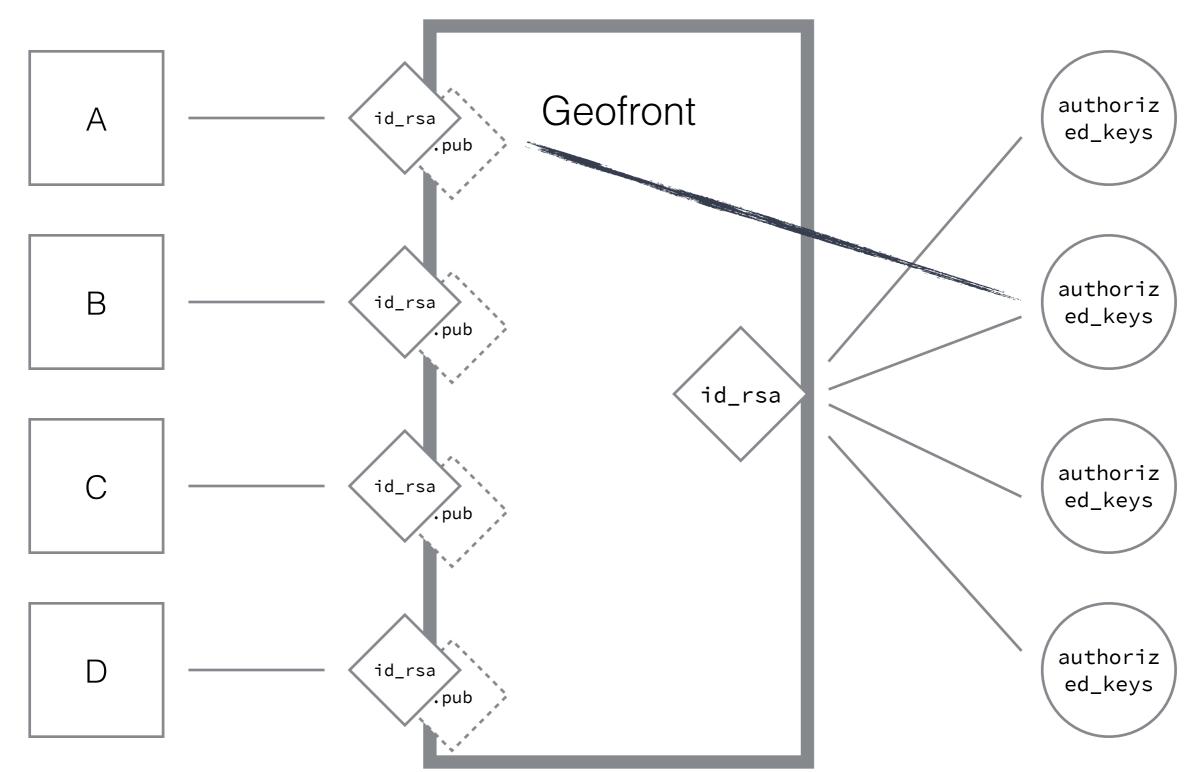
```
$ pip install --user geofront-cli
```

\$ geofront-cli authorize server-2

한시적 허용



한시적허용



허용된 원격지에 접속

- \$ pip install --user geofront-cli
- \$ geofront-cli authorize server-2
- \$ ssh server-2

한번에

- |\$ pip install --user geofront-cli
- \$ geofront-cli authorize server-2
- \$ ssh server-2

\$ geofront-cli ssh server-2 # shortcut

한시적 허용아이디어

한시적 허용 아이디어

• 팀원은 지오프론트 서버에 팀의 일원임을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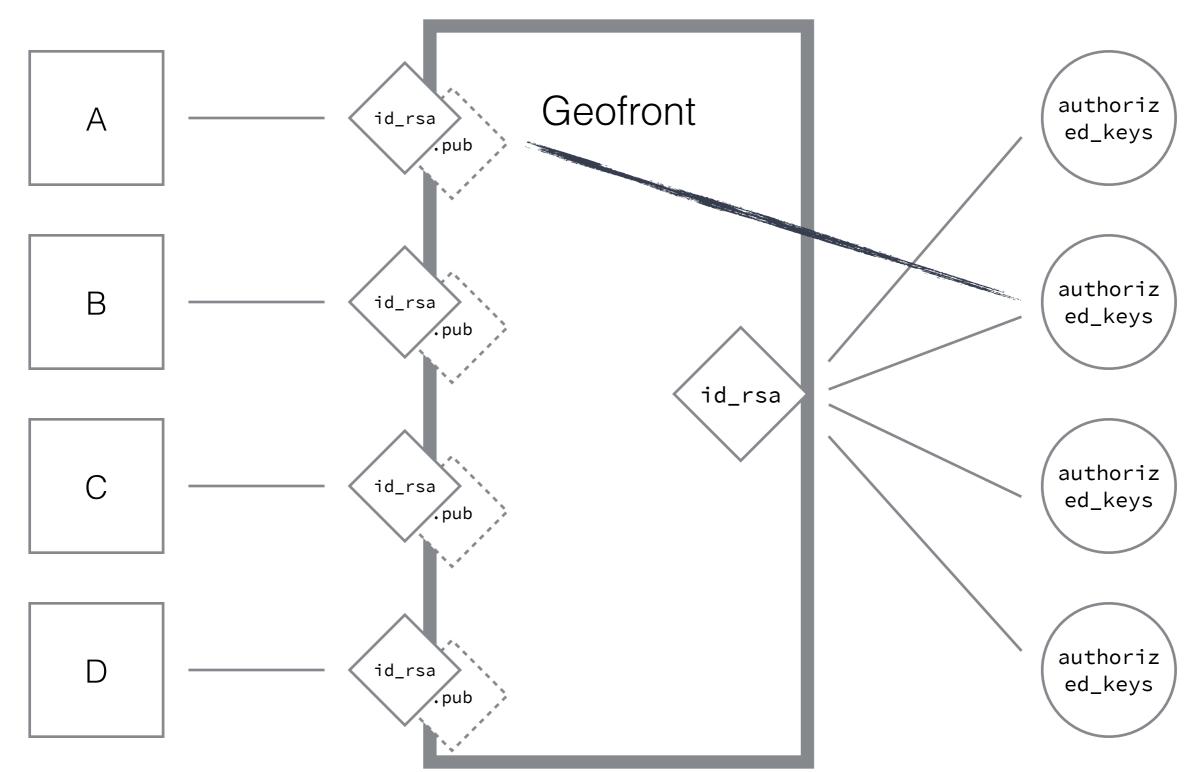
한시적 허용 아이디어

- 팀원은 지오프론트 서버에 팀의 일원임을 인증
- 인증된 팀원의 공개키를 접속할 원격지의 authorized_keys에 **한시적**으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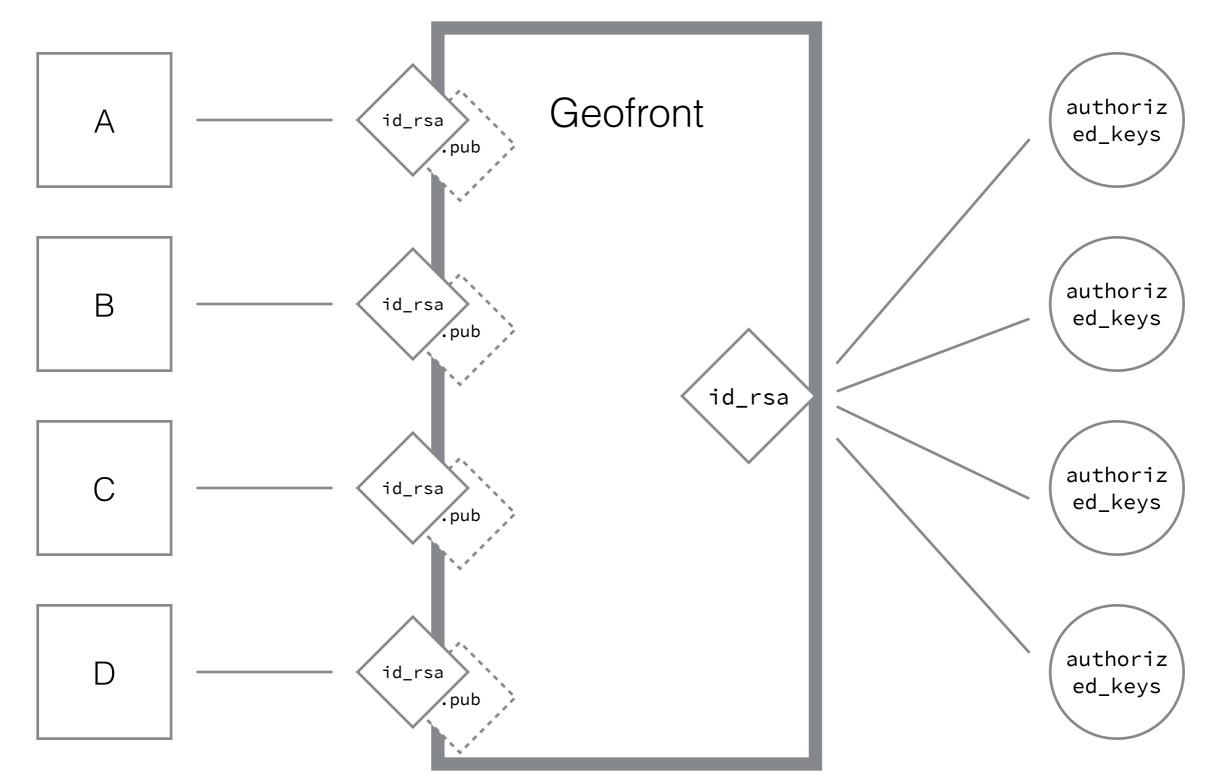
한시적 허용 아이디어

- 팀원은 지오프론트 서버에 팀의 일원임을 인증
- 인증된 팀원의 공개키를 접속할 원격지의 authorized_keys에 **한시적**으로 추가
- 해당 공개키는 약 60초 후에 다시 빠짐

한시적허용



한시적 허용



팀원인증

팀원인증

• 팀이 일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팀원인증

- 팀이 일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 · **깃헙 OAuth로 로그인해서** 우리 팀 organization 계정에 들어있는지 API로 확인

팀원 인증

- 팀이 일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 · **깃헙 OAuth로 로그인해서** 우리 팀 organization 계정에 들어있는지 API로 확인
- 팀에서 빠지면 인증도 자동으로 안됨!

팀원 인증

- 팀이 일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 · **깃헙 OAuth로 로그인해서** 우리 팀 organization 계정에 들어있는지 API로 확인
- 팀에서 빠지면 인증도 자동으로 안됨!
- 팀원 인증 방식은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되어 있음!

팀원 인증

- 팀이 일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 · **깃헙 OAuth로 로그인해서** 우리 팀 organization 계정에 들어있는지 API로 확인
- 팀에서 빠지면 인증도 자동으로 안됨!
- 팀원 인증 방식은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되어 있음!
- 빗버킷/깃랩/구글 앱스/자체 로그인 등 구현 가능

• 각자 공개키를 지오프론트에 직접 올리나?

- 각자 공개키를 지오프론트에 직접 올리나?
- 그럴 수도 있음!

- 각자 공개키를 지오프론트에 직접 올리나?
- 그럴 수도 있음!
- 하지만 깃헙 연동을 설정하면 이미 깃헙 계정에 등록한 공개키도 사용할 수 있음

- 각자 공개키를 지오프론트에 직접 올리나?
- 그럴 수도 있음!
- 하지만 깃헙 연동을 설정하면 이미 깃헙 계정에 등록한 공개키도 사용할 수 있음
- 신규 팀원 입장에서는 깃헙 organization 계정에 추가만 되면 아무 설정도 할 게 없음!

- 각자 공개키를 지오프론트에 직접 올리나?
- 그럴 수도 있음!
- 하지만 깃헙 연동을 설정하면 이미 깃헙 계정에 등록한 공개키도 사용할 수 있음
- 신규 팀원 입장에서는 깃헙 organization 계정에 추가만 되면 **아무 설정도 할 게 없음!**
- 기존 팀원 입장에서도 깃헙 organization 계정에 해당 신규 팀원 추가만 하면 **다른 건 해줄 필요 없음!**

• 원격지 목록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돼있음

- 원격지 목록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돼있음
- AWS 인스턴스 목록 그대로 사용하는 구현체도 있음

- 원격지 목록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돼있음
- · AWS 인스턴스 목록 그대로 사용하는 구현체도 있음
- 사실은 Libcloud 써서 유클라우드도 되지롱...!

- 원격지 목록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돼있음
- · AWS 인스턴스 목록 그대로 사용하는 구현체도 있음
- 사실은 Libcloud 써서 유클라우드도 되지롱...!
- ・ 난 안 쓸 거지만...

- 원격지 목록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돼있음
- · AWS 인스턴스 목록 그대로 사용하는 구현체도 있음
- 사실은 Libcloud 써서 유클라우드도 되지롱...!
- ・ 난 안 쓸 거지만...
- 하드 코딩 목록으로 관리하는 구현체도 있음

원격지 추가

- 원격지 목록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돼있음
- · AWS 인스턴스 목록 그대로 사용하는 구현체도 있음
- 사실은 Libcloud 써서 유클라우드도 되지롱...!
- ・ 난 안 쓸 거지만...
- 하드 코딩 목록으로 관리하는 구현체도 있음
- 직접 구현 클래스 짜서 사용해도 됨

https://github.com/spoqa/geofront

- https://github.com/spoqa/geofront
- https://geofront.readthedocs.org/

- https://github.com/spoqa/geofront
- https://geofront.readthedocs.org/
- http://spoqa.github.io/2014/07/09/geofront.html

pip로설치 가능

```
$ pip install Geofront
```

2부: 지오프론트 개발 후기

파이썬 2 성불기



• '08 웹 프레임워크 (파이썬 3 전용) — 실패!

- '08 웹 프레임워크 (파이썬 3 전용) 실패!
- · '13 Wand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 '08 웹 프레임워크 (파이썬 3 전용) 실패!
- · '13 Wand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13 alembic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 '08 웹 프레임워크 (파이썬 3 전용) 실패!
- · '13 Wand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13 alembic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13 SQLAlchemy-ImageAttach (2/3 동시 지원)

- '08 웹 프레임워크 (파이썬 3 전용) 실패!
- · '13 Wand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 '13 alembic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13 SQLAlchemy-ImageAttach (2/3 동시 지원)
- '13 Earth Reader (2/3 동시 지원)

- · '08 웹 프레임워크 (파이썬 3 전용) 실패!
- · '13 Wand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 '13 alembic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13 SQLAlchemy-ImageAttach (2/3 동시 지원)
- '13 Earth Reader (2/3 동시 지원)
- '14 libsass-python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포팅: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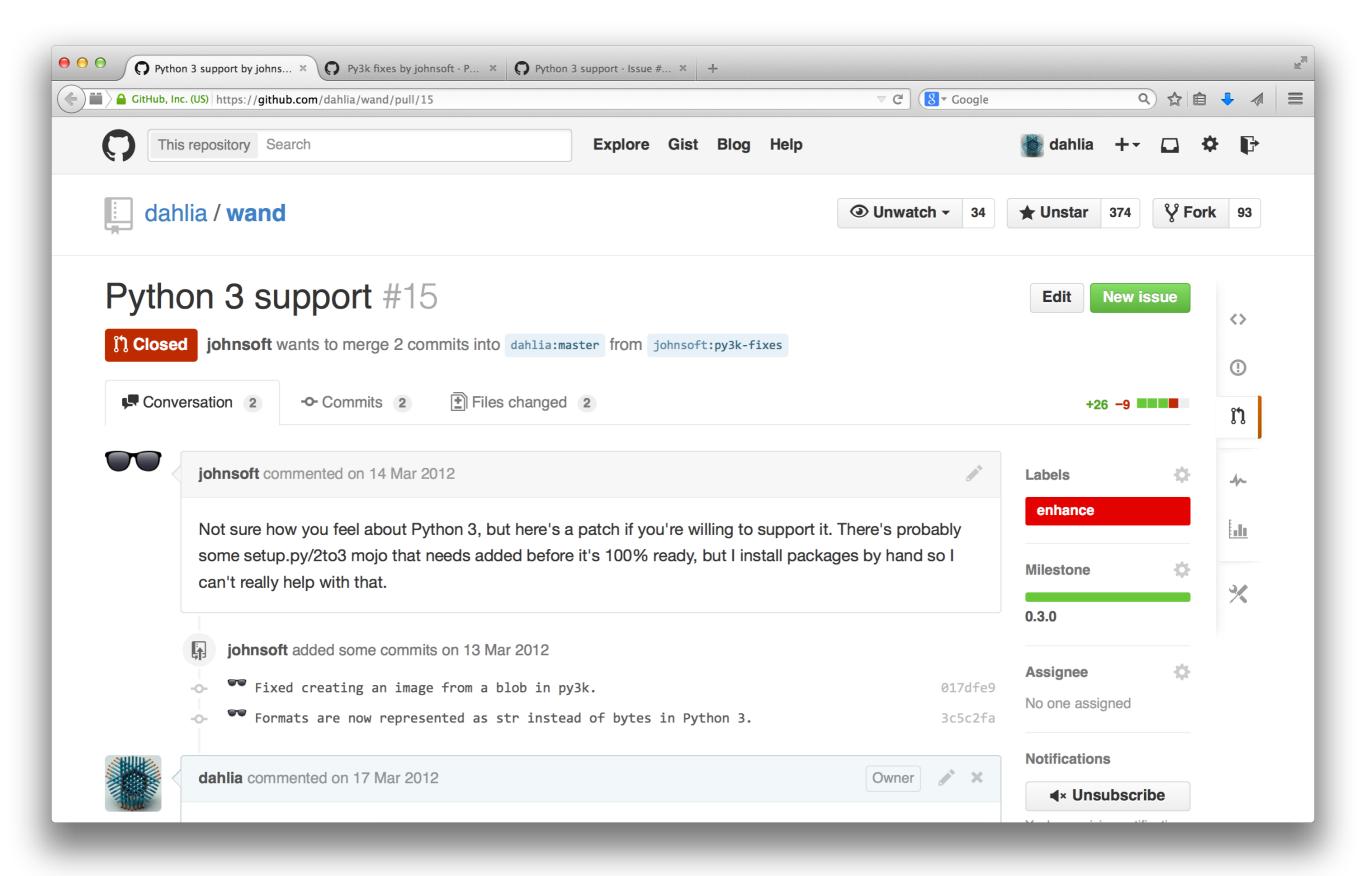
- ·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포팅: 3번
- · 처음부터 2/3 동시 지원: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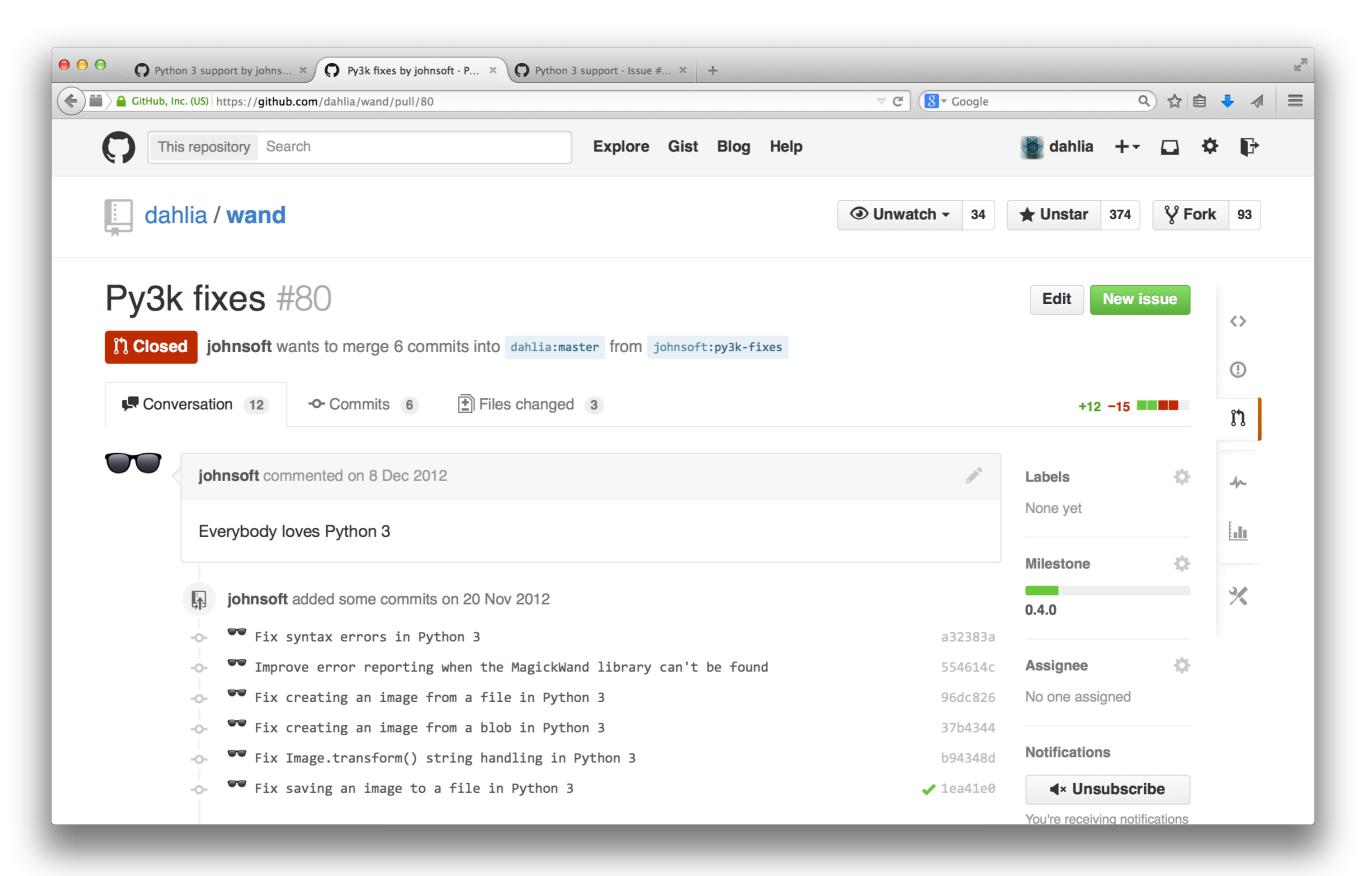
- · 파이썬 2 전용 → 2/3 동시 지원 포팅: 3번
- · 처음부터 2/3 동시 지원: 2번
- · 파이썬 3 전용: 1번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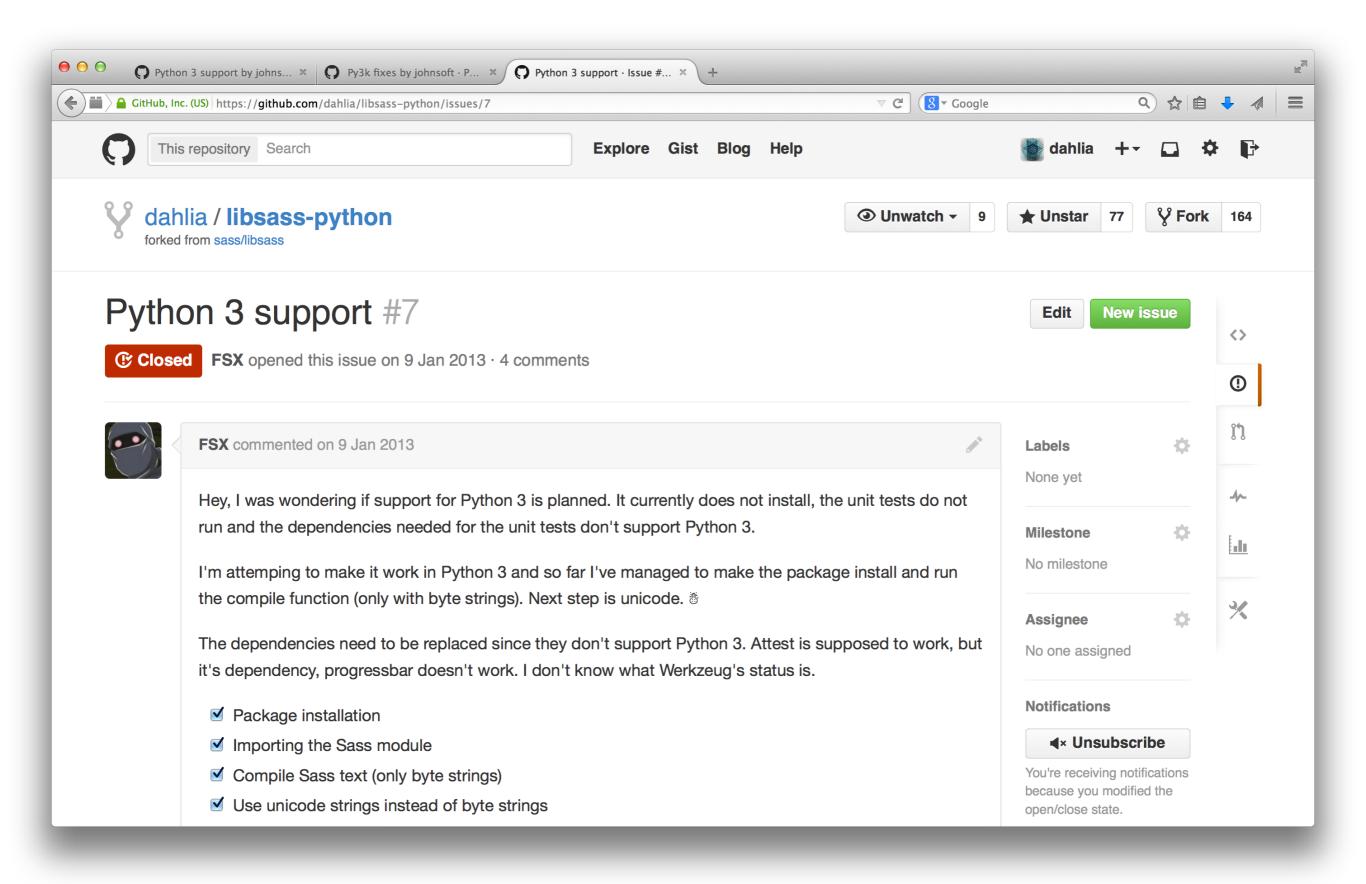
• 2008년에 크게 실패한 뒤로 파이썬 3는 쳐다도 안봤다

- 2008년에 크게 실패한 뒤로 파이썬 3는 쳐다도 안봤다
- 그런데 2012년부터 Wand 이슈 트래커에서 파이썬 3 패 치가 (여러번) 올라옴

- 2008년에 크게 실패한 뒤로 파이썬 3는 쳐다도 안봤다
- 그런데 2012년부터 Wand 이슈 트래커에서 파이썬 3 패 치가 (여러번) 올라옴
- · libsass-python 이슈 트래커에서도 파이썬 3 지원 요청이 올라옴







• 꾸준한 수요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었음

- 꾸준한 수요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었음
- 파이썬 2/3 동시 지원하는 코드를 짜는 노하우 축적

- 꾸준한 수요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었음
- 파이썬 2/3 동시 지원하는 코드를 짜는 노하우 축적
- 파이썬 3 기피증이 조금씩 사라짐

- 꾸준한 수요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었음
- 파이썬 2/3 동시 지원하는 코드를 짜는 노하우 축적
- 파이썬 3 기피증이 조금씩 사라짐
- · '13 년부터는 아예 **자발적으로** 파이썬 3 호환 작업을 시작

왜기피했더라

왜기피했더라

• 파이썬 3에 대해 점차 재평가하게 됨

왜기피했더라

- 파이썬 3에 대해 점차 재평가하게 됨
- 애초에 파이썬 3를 기피하게 됐던 이유를 되돌아봄

트라우마

트라우마

• 2008년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었음

- 2008년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었음
 - WSGI 프로토콜이 파이썬 3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던 시절 (PEP 3333 없었음)

- 2008년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었음
 - WSGI 프로토콜이 파이썬 3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던 시절 (PEP 3333 없었음)
 - 파이썬 3.0 시절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혼돈의 카오스

- 2008년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었음
 - WSGI 프로토콜이 파이썬 3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던 시절 (PEP 3333 없었음)
 - · 파이썬 3.0 시절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혼돈의 카오스
 - URL 파싱과 HTTP 메세지 파싱을 손으로 짜야 했음

- 2008년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었음
 - WSGI 프로토콜이 파이썬 3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던 시절 (PEP 3333 없었음)
 - · 파이썬 3.0 시절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혼돈의 카오스
 - URL 파싱과 HTTP 메세지 파싱을 손으로 짜야 했음
 - 파이썬 3를 쓰는 고객도 없었음

• 너무나 부족했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 너무나 부족했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 PyPI에서 파이썬 3 지원하는 패키지가 손에 꼽혔을 정도

- 너무나 부족했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 PyPI에서 파이썬 3 지원하는 패키지가 손에 꼽혔을 정도
- · 3.3에서 유니코드 리터럴(u'...')이 부활하기 전까지 2/3 호환 코드 짜기는 무척 힘들었음

- 너무나 부족했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 PyPI에서 파이썬 3 지원하는 패키지가 손에 꼽혔을 정도
- 3.3에서 유니코드 리터럴(u'...')이 부활하기 전까지 2/3 호환 코드 짜기는 무척 힘들었음
- PyPy 역시 파이썬 3를 최근까지도 구현 안했음

numpy, scipy

- numpy, scipy
- Django, South

- numpy, scipy
- Django, South
- Werkzeug, Flask

- numpy, scipy
- Django, South
- Werkzeug, Flask
- pycrypto, paramiko

- numpy, scipy
- Django, South
- Werkzeug, Flask
- pycrypto, paramiko
- kombu, celery

- numpy, scipy
- Django, South
- Werkzeug, Flask
- pycrypto, paramiko
- kombu, celery
- PIL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파이썬 2가 기본**이었거나

-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파이썬 2가 기본이었거나
- 아예 파이썬 3 패키지가 없는 배포판도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파이썬 2가 기본**이었거나
- 아예 파이썬 3 패키지가 없는 배포판도
- 맥역시 파이썬 3를 번들하지 않음

-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파이썬 2가 기본이었거나
- 아예 파이썬 3 패키지가 없는 배포판도
- 맥역시 파이썬 3를 번들하지 않음
- 구글 앱 엔진 등의 PaaS도 파이썬 3를 지원 안했음

나자신과의싸움

나자신과의싸움

• 내가 짰던 레거시는 또 어쩔 거여

· 지오프론트 서버는 파이썬 3 전용

- · 지오프론트 서버는 파이썬 3 전용
- 지오프론트 CLI 클라이언트는 파이썬 2.6 이상, 3.2 이상

- · 지오프론트 서버는 파이썬 3 전용
- 지오프론트 CLI 클라이언트는 파이썬 2.6 이상, 3.2 이상
- 어쩌다 그런 생각을...

• 파이썬 3가 **예정된 미래**라는 데에 커뮤니티가 **합의**하는 추세

- 파이썬 3가 **예정된 미래**라는 데에 커뮤니티가 **합의**하는 추세
- 희망하는 미래가 아니라 예정된 미래

- 파이썬 3가 **예정된 미래**라는 데에 커뮤니티가 **합의**하는 추세
- 희망하는 미래가 아니라 예정된 미래
- · 파이썬 2는 명백하게 **늙어가고** 있음

- 파이썬 3가 **예정된 미래**라는 데에 커뮤니티가 **합의**하는 추세
- 희망하는 미래가 아니라 예정된 미래
- · 파이썬 2는 명백하게 **늙어가고** 있음
- · 파이썬 2에서는 점차 더이상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음**

• 반면 파이썬 3의 생태계는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반면 파이썬 3의 생태계는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 커지는 가속도 역시 증가

- 반면 파이썬 3의 생태계는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 커지는 가속도 역시 증가
- · 기존 파이썬 3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생태계의 문제

파이썬 3의 현재

- 반면 파이썬 3의 생태계는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 커지는 가속도 역시 증가
- · 기존 파이썬 3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생태계의 문제
- 그런데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파이썬 3의 현재

- 반면 파이썬 3의 생태계는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 커지는 가속도 역시 증가
- · 기존 파이썬 3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생태계의 문제
- 그런데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파이썬 3에 대한 평가도 **시시각각 재평가**하지 않으면

파이썬 3의 현재

- 반면 파이썬 3의 생태계는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 커지는 가속도 역시 증가
- · 기존 파이썬 3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생태계의 문제
- 그런데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파이썬 3에 대한 평가도 **시시각각 재평가**하지 않으면
- · 매달 파이썬 3의 생태계의 사정은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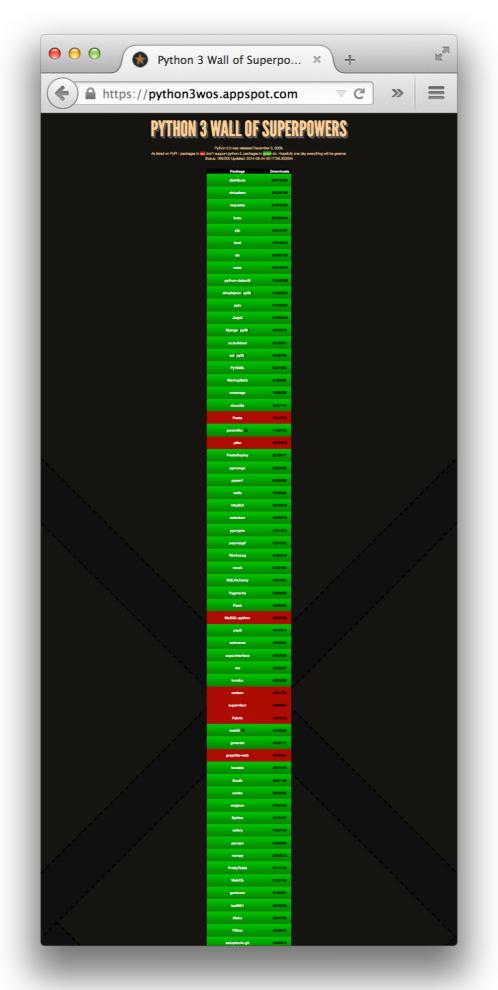
- numpy, scipy
- Django, South
- Werkzeug, Flask
- pycrypto, paramiko
- celery
- · PIL

- numpy (1.5.0), scipy
- Django, South
- Werkzeug, Flask
- pycrypto, paramiko
- celery
- · PIL

- numpy (1.5.0), scipy (0.9.0)
- Django, South
- Werkzeug, Flask
- pycrypto (2.4), paramiko
- celery (2.4.0)
- · PIL

- numpy (1.5.0), scipy (0.9.0)
- Django (1.5), South (0.8)
- Werkzeug (0.9), Flask (0.10)
- pycrypto (2.4), paramiko
- celery (2.4.0)
- Pillow (2.0.0)

- numpy (1.5.0), scipy (0.9.0)
- Django (1.5), South (0.8)
- Werkzeug (0.9), Flask (0.10)
- pycrypto (2.4), paramiko (1.13.0)
- celery (2.4.0)
- Pillow (2.0.0)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모두 파이썬 3를 패키지로 지원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모두 파이썬 3를 패키지로 지원
- · 젠투, 아치 등은 아예 파이썬 3가 기본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모두 파이썬 3를 패키지로 지원
- · 젠투, 아치 등은 아예 파이썬 3가 기본
- 아직 구글 앱 엔진은 파이썬 2.7만 지원하지만, 헤로쿠는 파이썬 3를 100% 지원함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모두 파이썬 3를 패키지로 지원
- · 젠투, 아치 등은 아예 파이썬 3가 기본
- 아직 구글 앱 엔진은 파이썬 2.7만 지원하지만, 헤로쿠는 파이썬 3를 100% 지원함
- 아쉽지만 맥에서는 여전히 파이썬 2.5, 2.6, 2.7만 번들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모두 파이썬 3를 패키지로 지원
- · 젠투, 아치 등은 아예 파이썬 3가 기본
- 아직 구글 앱 엔진은 파이썬 2.7만 지원하지만, 헤로쿠는 파이썬 3를 100% 지원함
- 아쉽지만 맥에서는 여전히 파이썬 2.5, 2.6, 2.7만 번들
- pyenv 등으로 설치하면 문제 ㄴㄴ

- 주요 리눅스 배포판에서 모두 파이썬 3를 패키지로 지원
- · 젠투, 아치 등은 아예 파이썬 3가 기본
- 아직 구글 앱 엔진은 파이썬 2.7만 지원하지만, 헤로쿠는 파이썬 3를 100% 지원함
- 아쉽지만 맥에서는 여전히 파이썬 2.5, 2.6, 2.7만 번들
- pyenv 등으로 설치하면 문제 ㄴㄴ
- PyPy도 이제 파이썬 3 구현했음!

• 파이썬 3 문제의 대부분이 생태계였다면...

- 파이썬 3 문제의 대부분이 생태계였다면...
- 생태계 문제가 사라진 지금은 대체 어떤 문제가 남았을까?

- 파이썬 3 문제의 대부분이 생태계였다면...
- 생태계 문제가 사라진 지금은 대체 어떤 문제가 남았을까?
- 아마 그것은 내 자신이 싸질러 둔 똥코드?

- 파이썬 3 문제의 대부분이 생태계였다면...
- 생태계 문제가 사라진 지금은 대체 어떤 문제가 남았을까?
- 아마 그것은 내 자신이 싸질러 둔 똥코드?
- · 그래도 **새로 싸는 똥**은 파이썬 3로 똥칠할 수 있다!

• 신규 프로젝트

- 신규 프로젝트
- 즉 파이썬 2로 씌어진 레거시 코드 없음

- 신규 프로젝트
- 즉 파이썬 2로 씌어진 레거시 코드 없음
- 서버이므로 최대한 여러 환경에서 돌아야 할 필요도 없음

- 신규 프로젝트
- 즉 파이썬 2로 씌어진 레거시 코드 없음
- 서버이므로 최대한 여러 환경에서 돌아야 할 필요도 없음
- (지오프론트 CLI 클라는 파이썬 2.6, 2.7도 지원)

- 신규 프로젝트
- 즉 파이썬 2로 씌어진 레거시 코드 없음
- 서버이므로 최대한 여러 환경에서 돌아야 할 필요도 없음
- (지오프론트 CLI 클라는 파이썬 2.6, 2.7도 지원)
- 의존하는 라이브러리는 어떨까?

· paramiko — SSH 라이브러리

- · paramiko SSH 라이브러리
- Werkzeug, Flask 웹 라이브러리

- · paramiko SSH 라이브러리
- Werkzeug, Flask 웹 라이브러리
- · apache-libcloud laa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 · paramiko SSH 라이브러리
- Werkzeug, Flask 웹 라이브러리
- · apache-libcloud laa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 · waitress WSGI 서버 (웹 서버)

- · paramiko SSH 라이브러리
- Werkzeug, Flask 웹 라이브러리
- · apache-libcloud laa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 · waitress WSGI 서버 (웹 서버)
- pytest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 · paramiko SSH 라이브러리
- Werkzeug, Flask 웹 라이브러리
- · apache-libcloud laa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 · waitress WSGI 서버 (웹 서버)
- pytest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 · Sphinx 문서화 도구

실제로 썼던 신박한 기능들

실제로 썼던 신박한 기능들

• PEP 405 — 빌트인 가상 환경 (pyvenv)

- PEP 405 빌트인 가상 환경 (pyvenv)
- PEP 453 빌트인 pip

- PEP 405 빌트인 가상 환경 (pyvenv)
- PEP 453 빌트인 pip
- PEP 3107 함수 어노테이션

- PEP 405 빌트인 가상 환경 (pyvenv)
- PEP 453 빌트인 pip
- PEP 3107 함수 어노테이션
- PEP 433 functools.singledispatch

- PEP 405 빌트인 가상 환경 (pyvenv)
- PEP 453 빌트인 pip
- PEP 3107 함수 어노테이션
- PEP 433 functools.singledispatch
- datetime.timezone

•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맨날 하던 짓

-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맨날 하던 짓
- easy_install pip

-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맨날 하던 짓
- easy_install pip
- pip install virtualenv

-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맨날 하던 짓
- easy_install pip
- pip install virtualenv
- virtualenv project-name-env

-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맨날 하던 짓
- easy_install pip
- pip install virtualenv
- virtualenv project-name-env
- · 이제 그냥 내장된 pyvenv 명령어 쓰면 됨

-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맨날 하던 짓
- easy_install pip
- pip install virtualenv
- virtualenv project-name-env
- 이제 그냥 내장된 pyvenv 명령어 쓰면 됨
- pyvenv project-name-env

• 더이상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setuptools, pip 설치 안해도 됨

- 더이상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setuptools, pip 설치 안해도 됨
- · Trivia: pip는 내부적으로 requests, html5lib 등을 사용

- 더이상 파이썬 처음 세팅할 때 setuptools, pip 설치 안해도 됨
- · Trivia: pip는 내부적으로 requests, html5lib 등을 사용
- pip._vendor.{requests,html5lib} 구경해보세요

PEP 3107 — 함수 어노테이션

```
class Team:
    """Backend interface for team membership auth..."""
    @typed
    def authenticate(self,
                     auth_nonce: str,
                     requested_redirect_url: str,
                     wsgi_environ: collections.abc.Mapping
                     ) -> Identity:
        """Second step of authentication process, ..."""
```

• 제너릭 메서드, 혹은 제너릭 함수라고 부르는 것

- 제너릭 메서드, 혹은 제너릭 함수라고 부르는 것
- 내가 구현하지 않은 클래스 계층 구조에 메서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

- 제너릭 메서드, 혹은 제너릭 함수라고 부르는 것
- 내가 구현하지 않은 클래스 계층 구조에 메서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
- 혹은, 클래스 자체의 인터페이스로 넣기 애매한 기능들을 따로 함수로 빼면서도 다형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제너릭 메서드, 혹은 제너릭 함수라고 부르는 것
- 내가 구현하지 않은 클래스 계층 구조에 메서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
- 혹은, 클래스 자체의 인터페이스로 넣기 애매한 기능들을 따로 함수로 빼면서도 다형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다중 디스패치는 지원 안함 (자주 필요한 건 아님)

```
@singledispatch
def get_metadata(driver: NodeDriver,
                 node: Node) -> collections.abc.Mapping:
    return driver.ex_get_metadata(node)
@get_metadata.register(GCENodeDriver)
def gce_get_metadata(driver: GCENodeDriver,
                     node: Node
                     ) -> collections.abc.Mapping:
    return node.extra['metadata']
```

• 표준 datetime 모듈에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은데

- 표준 datetime 모듈에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은데
- 사실 그 중 많은 부분은 파이썬 3에서 이미 **몇년 전**에 고쳐진 사항들

- 표준 datetime 모듈에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은데
- 사실 그 중 많은 부분은 파이썬 3에서 이미 **몇년 전**에 고쳐진 사항들
- 파이썬 2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사용하면서 느낌

- 표준 datetime 모듈에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은데
- 사실 그 중 많은 부분은 파이썬 3에서 이미 **몇년 전**에 고쳐진 사항들
- 파이썬 2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사용하면서 느낌
- · 그 중 하나가 시간대 인터페이스(tzinfo)만 제공할 뿐 시 간대의 **구현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 표준 datetime 모듈에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은데
- 사실 그 중 많은 부분은 파이썬 3에서 이미 **몇년 전**에 고쳐진 사항들
- 파이썬 2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사용하면서 느낌
- 그 중 하나가 시간대 인터페이스(tzinfo)만 제공할 뿐 시 간대의 구현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 · 심지어 UTC조차도!

• 그런데 파이썬 3에서는 이미 고쳐져 있었던 것이다

- 그런데 파이썬 3에서는 이미 고쳐져 있었던 것이다
- datetime.timezone.utc

- 그런데 파이썬 3에서는 이미 고쳐져 있었던 것이다
- datetime.timezone.utc
- timezone(timedelta(housrs=9), 'KST')

- 그런데 파이썬 3에서는 이미 고쳐져 있었던 것이다
- datetime.timezone.utc
- timezone(timedelta(housrs=9), 'KST')
- · 매 프로젝트마다 myproject.tz 모듈 만들던 짓 더이상 안해도 됨

• PEP 3132 — 언패킹에서 * 연산자 사용

- PEP 3132 언패킹에서 * 연산자 사용
- PEP 344 안쪽 예외 보여주기

실제로 썼던 신박한 기능들

- PEP 3132 언패킹에서 * 연산자 사용
- PEP 344 안쪽 예외 보여주기
- PEP 435 열거형

실제로 썼던 신박한 기능들

- PEP 3132 언패킹에서 * 연산자 사용
- PEP 344 안쪽 예외 보여주기
- PEP 435 열거형
- urllib.request.Request.method

• 파이썬 2에서도 함수 인자에는 * 연산자를 쓸 수 있음

- 파이썬 2에서도 함수 인자에는 * 연산자를 쓸 수 있음
- 이제는 튜플 언패킹 등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것

- 파이썬 2에서도 함수 인자에는 * 연산자를 쓸 수 있음
- 이제는 튜플 언패킹 등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것
- fst, snd, *rest = get_list()

- 파이썬 2에서도 함수 인자에는 * 연산자를 쓸 수 있음
- 이제는 튜플 언패킹 등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것
- fst, snd, *rest = get_list()
- fst, snd, *mid, last = get_list()

```
def a():
    raise ValueError('something went wrong')
def b():
    try:
        a()
    except ValueError:
        raise RuntimeError('crashed')
b()
```

• 예외를 잡아서 다른 형태의 예외 타입으로 다시 던질 때

- 예외를 잡아서 다른 형태의 예외 타입으로 다시 던질 때
- 파이썬 2에서는 에러 메세지에 바깥쪽의 스택 트레이스만 표시됨

- 예외를 잡아서 다른 형태의 예외 타입으로 다시 던질 때
- 파이썬 2에서는 에러 메세지에 바깥쪽의 스택 트레이스만 표시됨
- 디버그할 때 해당 스택까지 들어가서 안쪽에서 실제로는 어떤 예외가 난 건지 직접 찾아봐야함

- 예외를 잡아서 다른 형태의 예외 타입으로 다시 던질 때
- 파이썬 2에서는 에러 메세지에 바깥쪽의 스택 트레이스만 표시됨
- 디버그할 때 해당 스택까지 들어가서 안쪽에서 실제로는 어떤 예외가 난 건지 **직접 찾아봐야함**
- · 파이썬 3에서는 안쪽에서 난 오류도 같이 보여줌!

```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t.py", line 6, in b
    a()
  File "t.py", line 2, in a
    raise ValueError('something went wrong')
ValueError: something went wrong
During handling of the above exception, another exception occurred: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t.py", line 10, in <module>
    b()
  File "t.py", line 8, in b
    raise RuntimeError('crashed')
RuntimeError: crashed
```

PEP 435 — 열거형

```
class KeyType(enum.Enum):
    """SSH key types."""
    ecdsa_ssh2_nistp256 = 'ecdsa-sha2-nistp256'
    ecdsa_ssh2_nistp384 = 'ecdsa-sha2-nistp384'
    ecdsa_ssh2_nistp521 = 'ecdsa-sha2-nistp521'
    ssh_dss = 'ssh-dss'
    ssh_rsa = 'ssh-rsa'
```

PEP 435 — 열거형

```
>>> list(KeyType)
[KeyType.ecdsa_ssh2_nistp256, KeyType.ecdsa_ssh2_nistp384,
KeyType.ecdsa_ssh2_nistp521, KeyType.ssh_dss,
KeyType.ssh_rsa]
>>> KeyType.ssh_rsa
KeyType.ssh_rsa
>>> KeyType.ssh_rsa.name
'ssh_rsa'
>>> KeyType.ssh_rsa.value
'ssh-rsa'
```

· (파이썬 3에서 urllib2가 urllib.request로 이름 변경됨)

- · (파이썬 3에서 urllib2가 urllib.request로 이름 변경됨)
- · 기존에는 urllib2에서 GET, POST 메서드만 사용 가능

- (파이썬 3에서 urllib2가 urllib.request로 이름 변경됨)
- 기존에는 urllib2에서 GET, POST 메서드만 사용 가능
- 이제는 PUT, DELETE 등 다른 메서드도 사용 가능!

- (파이썬 3에서 urllib2가 urllib.request로 이름 변경됨)
- 기존에는 urllib2에서 GET, POST 메서드만 사용 가능
- 이제는 PUT, DELETE 등 다른 메서드도 사용 가능!
- PUT 하나 보내자고 requests 깔아서 쓰던 짓은 안녕

- (파이썬 3에서 urllib2가 urllib.request로 이름 변경됨)
- 기존에는 urllib2에서 GET, POST 메서드만 사용 가능
- 이제는 PUT, DELETE 등 다른 메서드도 사용 가능!
- PUT 하나 보내자고 requests 깔아서 쓰던 짓은 안녕
- 그냥 파이썬 2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

• 파이썬 2는 점점 더 파이썬 세상의 혜택을 못 보게 될 것

- 파이썬 2는 점점 더 파이썬 세상의 혜택을 못 보게 될 것
- 이미 파이썬 2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파이썬 2는 점점 더 파이썬 세상의 혜택을 못 보게 될 것
- 이미 파이썬 2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예: PEP 466 Python 2.7.x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

- 파이썬 2는 점점 더 파이썬 세상의 혜택을 못 보게 될 것
- 이미 파이썬 2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예: PEP 466 Python 2.7.x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
- 성장이 없는 파이썬 2, 이제 놓아줍시다!

spoqa

WE'RE HIRING

즐겁게 개발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동료를 찾습니다 http://spoqa.github.io/job.html

